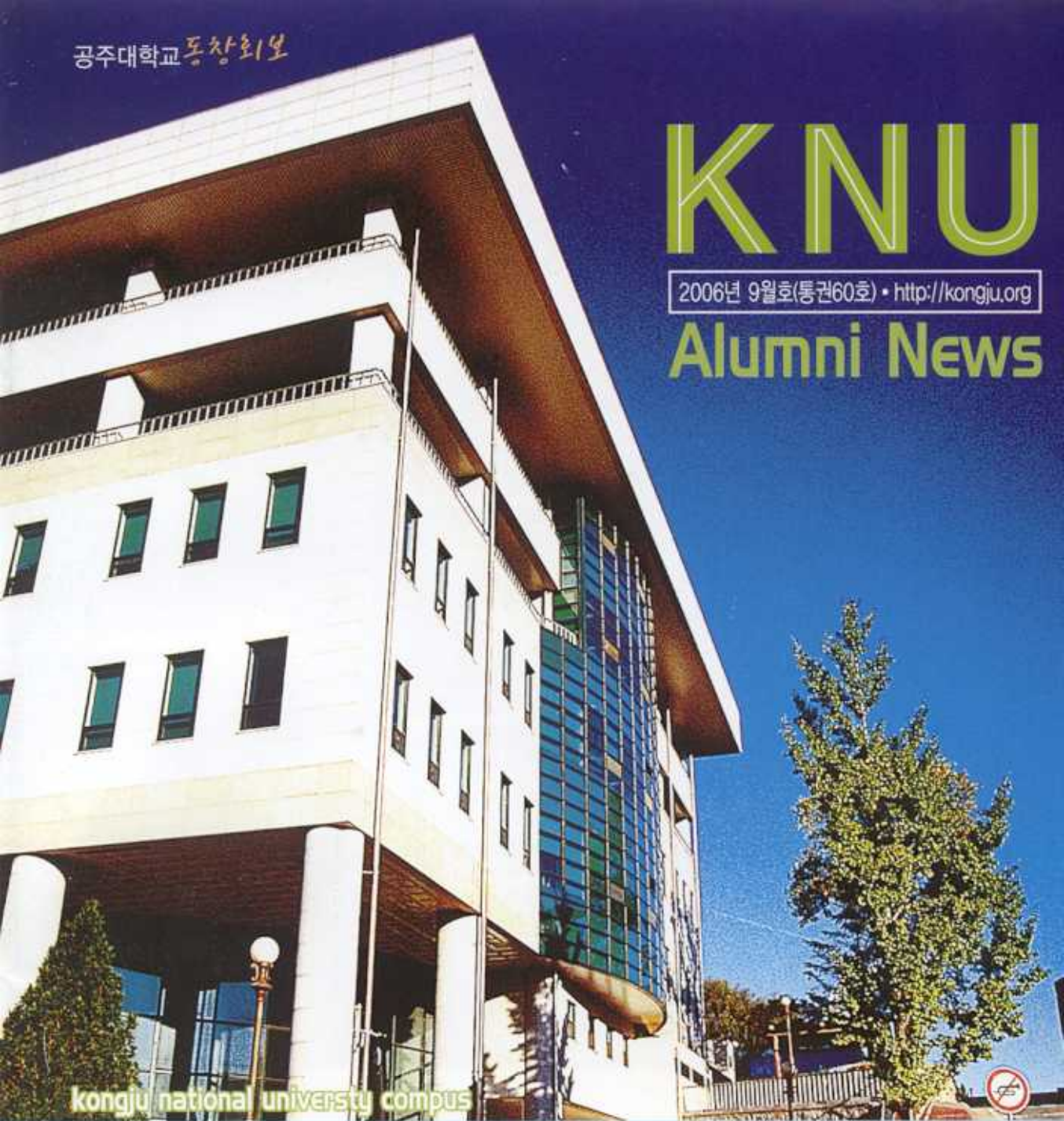


KNU

2006년 9월호(통권60호) • <http://kongju.org>

Alumni New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ampus



신관캠퍼스



예산캠퍼스



유성캠퍼스



천안캠퍼스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회관의 규모

- 대 지 : 250~300평 건평 : 500평(100평/층 × 5층)
- 활용방안 1~4층 : 임대, 5층 : 동창회 사무실 및 회의실

기금모금 목표액 및 1구좌

- 목표액 : 15~20억원
- 1구좌 : 100,000원

기금 및 재산관리 절차

-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금 후 동창회창학재단에 기탁하여 관리
- 공익법인관리 · 운영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건물 마련 후 재단명의로 법원에 등기

기탁지에 대한 예우

- 동판에 기탁자 이름을 새겨 회관내에 부착하여 영구보존
- 기념품을 제작하여 회관 개관식 때 증정

관한 위임

- 회관건축 과정에서의 주요 결정사항은 회관건설실무추진위원회와 총동창회 고문단에 위임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으며

반 백 년을 넘긴 우리 모교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모교 발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32,000여 동문들의 화합과 발전에 초석이 되는
보금자리 없음을 아쉬워했었습니다.

이런 기대와 요청으로 동창회관 건립은
2003년 총회에서 동창회 사업으로 채택되었고,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그 크고 막중한 책임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창회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를 순회방문하면서 우리들의 꿈이요, 뜻이며,
모교사랑의 상징인 동창회관건립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모교와 동문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보답으로...
모쪼록 흔쾌히 참여해 주시고
부족하면 질책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장 이 춘 우(11회, 물리)

Contents



동문시단

달팽이가 기어간 차리는 왜 은빛으로 빛날까 - 이재일 동문 05

화보

총동창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성황리에 열려 06

동창회장 인사말

동문에게 드리는 글 08

동창회소식

총동창회 상임이사회의 개최 10
 공주지부 이사 대의원회의 및 전입동문 환영회 10
 서산지부 정기총회 10
 논산지부 이사 및 대표자회의 11
 서천지부 이사회 11
 보령지부 최고지도자과정 간담회 11
 오재직 회장 중국 삼해한국국제학교 방문 12
 전주교대 총장에 나가면 동문 12
 교장 자격연수 동문 격려 13
 동문 124명 모교에서 1정 자격연수 14
 제5대 교육위원에 모교 동문 6명 당선 15
 동문 교명반대 서명지 모교에 전달 16
 동창회 교명반대 관련 공주시 의회 방문 16
 8월말 퇴임 동문에 감사장 전달 16
 각 학과 동창회 개최 소식 17
 최재석 동문 저서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17
 이달우 동문 <집초교육론> 발간 18
 이관우 동문 <괴테 자서전> 완역 18

모교소식

교수 43명 신규 임용 19
 200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거행 19
 제5대 김재현 총장 취임 20

교명변경 반대 활동

신임총장의 교명변경 추진에 대한 동창회 입장 24
 신임 총장에게 바라는 글 26
 교명변경 관련 고문단회의 개최 30

동문 마당

• 여기 이 동문 - 월송(月松) 이선자 동문 31
 • 동문 수필 - 윤석조 동문 : 긴 인연(因緣) 32

승진·영전자 명단

2006년 9월 1일자 승진·영전 동문 명단 34

동창회관소식

동창회관건립기금 기탁자 명단 36

회비납부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37

달팽이가 기어간 자리는 왜 은빛으로 빛날까

하재일 (34, 국어)

겨우내 나무는 죽어 있는 게 아니다 허공을 향하여 연신 물을 뿜어 올리며 연기를 삼키고 있다 하늘에서 바라본 나무는 내 시타구니를 향하여 몸체를 뿜어 내리고 있다 그럼, 뿌리가 꽃처럼 보이겠네 흡사 그것은 죽은 자의 산발한 머리카락이 아닐까 옛그제 이사 간 동네에서 발견했다 내 땅 밭이랑에도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날은 비가 내렸다 우두커니 서 있는 내게 바람에 젖은 버드나무가 처연(悽然)한 모습으로 다가와 뿌리 뽑힌 내 생애의 실뿌리들로 살아났다 창 밖으로 빗방울들이 파도처럼 밀려갔다 하얗게 밀려오면 나는 메아리도 없는 풍경에 취해 낯선 길에 내가 풀어 놓은 짐 보따리를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흐느꼈다 버드나무야 버드나무야 비바람에 잘도 춤을 추는구나 밤이 깊어 갈수록 유연하구나 나는 약해져야지 너를 이기기 위하여 눈동자에 밤 풍경을 그려 넣는다 그래그래 나는 부러지지 않는 버드나무가 되고 싶어 창공을 향해 몸 밖으로 힘껏 실뿌리를 밀어낸다 잘 자라다오 바람 속으로 기어가는 갑충(甲蟲)의 딱딱한 얼굴이 어둠에 덮여 있다 서서히 버드나무를 삼키려는 벌레의 어금니가 달빛을 물고 와 적요로운 창 밖, 마침내 한 세상이 수평으로 열린다.



총동창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성황리 열려



01



04



총동창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7월 2일(일) 전국 각지에서 5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충북지부 주관으로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충북지부 류봉식(17, 화학) 지부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오재직 동창회장의 인사,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과 김재현 모교 총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승동 전임 동창회장과 회의를 유치한 류봉식 충북지부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예결산 승인에 이은 안전토의에서는 모교 교명변경과 충남대와의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창회 장학금을 전체 수석입학생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학의 수석입학생에게도 확대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교명변경과 충남대와의



03

01. 오제직 동창회장의 인사
02. 환영사를 하는 유봉식 충북지부장
03. 충북예술고 학생들의 식전행사 한국무용
04. 열을 지어 등록하는 동문들
05. 열띤 안건토의를 하고 있는 동문들
06. 2007년 경기도 총회 초청사를 하는 권용희 경기도 지부장
07. 동문들의 모습



06



07

통합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즉각 모교 총장에게 전달하고 전체 동문의 서명을 받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내년도 정기총회를 경기도지부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권용희(18, 교육) 경기도 지부회장의 초청사가 낭독되었다. 이날 총회의 공식행사는 모교 교가제창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공식행사 후 이어진 오찬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동문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정담을 교환하는 가운데 화기에애한 동문의 정을 나누었다. 이날 오찬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오찬장소를 추가로 확보하기까지 했다.

참석 동문들은 내년에 경기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공주대학교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오제직 회장

존경하는 공주대학교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경향 각지에서 이곳, 청주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임을 빛내주시기 위해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주시는 모교의 김재현 총장님과 충청북도 이기용 교육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시는 신대현, 이춘우, 김승동 고문님을 비롯한 여러 원로동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불원천리하고 찾아오신 지부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정기총회는 오랜만에 모교가 아닌 이곳 청주에서 충북지부 주관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만반의 준비로 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충북지부의 류봉식 지부장님을 비롯한 임원과 모든 회원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충북지부의 활성화와 지부 회원 간의 결속과 유대에 더없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충북지부 주관의 총회를 필두로 하여 앞으로는 매년 전국 각 지부를 순회하며 정기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지부가 한결같이 활성화되고, 모든 동문들이 굳게 뭉쳐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도 정기총회도 모교를 떠나 경기도지부 주관으로 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저는 작년 이맘때 5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제17대 동창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부조직의 기반을 튼튼히 함으로써 활성화된 동창회를 통해 동문들 간의 우의를 다지면서 모교사랑의 정성을 한데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우선 모교가 위치한 충남지부부터 활성화시키고자 충남지역 전체 이사 및 지부장회의를 소집하여 각 지부의 현황을 청취하고,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각 지부의 활성화 방안과 바람직한 활동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지부를 방문하여 지부장 및 회원들과 지부 활성화 방안과 동문 상호간 유대 및 결속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동창회 조직의 저변확대를 위해 회원수가 적은 일부 비활성화 지부와 공주, 부여, 예산, 보령

동지에 개설된 최고지도자과정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지부와 과정을 방문하여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여건상 많은 지부와 과정을 방문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부분적인 활성화는 이루어졌다고 믿으면서 앞으로는 최대한 많은 수의 지부를 찾아 미력하나마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모교에서는 지금 얼마 전 취임한 김재현 총장님을 필두로 전체 동문과 교직원이 하나 되어 새로운 도약의 청사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총장님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중등교사양성의 요람으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모교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인재양성의 중심대학교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입총장님께서 취임 후 한 달 이내에 교명변경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동창회에서는 즉각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교명의 변경은 우리 동문들의 본향인 공주사범대학의 오랜 전통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그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변수, 예컨대 백제의고도 공주와 국립공주사범대학을 통하여 60여년 동안 전국민에 각인된 대학의 이미지의 부가가치를 하루아침에 없애는 일,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의 캠퍼스 확보와 인근대학과의 통합, 국립대 법인화 등과 같은 대내외환경의 변화추이를 지켜보면서 전체 대학구성원 및 동문의 의사와 나아가 지역사회의 여론까지도 다각적으로 수렴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고 세심하게 추진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저와 모든 동문들의 한결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우리 5만여 동문들은 교명변경을 비롯한 모교의 현안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 21세기 공주대학교의 웅비를 기약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아야겠습니다. 총장을 구심점으로 5만여 동문들이 원심력이 된다면 우리의 모교는 머지않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서있게 만들어준 것은 우리의 모교 공주대학교입니다. 우리는 모교사랑의 정신을 일깨우며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처럼 언제나 동문 상호간의 우의와 유대를 돈독히 쌓아나가면서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따뜻하게 돕고 사랑합시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총회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아름다운 만남의 추억으로 아로새겨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공주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오재직

총동창회 상임이사회의 개최

총동창회 상임이사회의가 3월 30일(목) 오후 6시 공주시내 <중국성>에서 개최되었다. 오제직 동창회장과 30여 명의 상임이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오제직 회장의 인사말과 최석남 상임부회장의 지난 10월 상임이사회의 이후의 동창회 사업에 관한 보고에 이어 안건협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 정기총회를 7월 2일(일) 충북지부 주관으로 청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개최장소 등 세부사항은 충북지부와 의밀한 협의 아래 결정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수가 적은 일부 비활성화 지부와 최고지도자과정 등 공주, 부여, 예산, 보령 등지에 개설된 과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동창회 본부에서 이들 지부와 과정을 방문하여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대와의 통합논의에 대해 통합문제가 차기총장의 손에 넘어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공청회와 토론회 등 가시적 움직임이 있을 경우 동창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현재상황으로서는 통합의 효과와 의의가 미진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교의 교명 변경 논란에 대해 전체 동문이 납득할만한 이유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공주대학교의 교명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학내에 교명 변경 반대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차기 총장의 공약사항인 대학본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등 국가정책적인 측면에

서 이점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하고, 신입총장 취임 이후 동향을 주시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의 대학발전을 토대로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주 지부 이사 대의원회의 및 전입동문 환영회

공주지부에서는 3월 28일(화) 오후 6시 공주시내 <새이화 가든>에서 이사 대의원회의 및 전입동문 환영회를 개최했다. 김금일 공주지부장을 비롯한 80여 명의 임원 및 전입회원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는 오제직 동창회장도 자리를 함께 하여 격려했으며, 동창회 본부에서도 최석남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총무단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오제직 동창회장의 축사와 김금일 지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전입동문 소개와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 동문들은 지부의 발전과 동문들 간의 단합과 협력을 다짐하고 연회비 및 이사회비 납부에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산지부 정기총회

서산지부 정기총회가 4월 27일(목) 오후 6시 서산시내 <서산석갈비>에서 열렸다.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이명호(22, 물리) 지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임원 및 이사 소개, 경과보고 및 회계결산, 안건협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명호 지부

장은 그 동안의 지부 동창회 활동상황을 설명하고, 회원 간의 화합과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총동창회 연회비와 지부 연회비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6년 하반기 사업으로 친선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부에서 백옥현, 성열옥 총무이사가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서산지부에서는 4월 20일(목) 저녁 같은 장소에서 16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 및 학교 대표자 모임을 가진 바 있다.

논산지부 이사 및 대표자회의

논산지부(지부회장 민병교 용남중 교장 / 23, 수학) 이사 및 대표자회의가 4월 6일(목) 오후 6시 논산 시내 <태능숯불갈비>에서 열렸다. 논산지부 이사와 각 학교 대표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부 활성화와 회원 결속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동창회 본부에서 최석남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총무단도 함께하여 회원들을 격려했다.

서천지부 이사회

서천지부 이사회가 지난 5월 8일(월) 회장과 이사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동문간의 우의를 다졌다.

보령지구 최고지도자과정 간담회

보령지구 최고지도자과정(지도교수 신동일 산업과학대학 식물자원학과 교수) 동문들과 총동창회 임원진과의 간담회가 4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보령 <황해횃집>에서 열렸다. 각 지구 과정을 방문하여 활성화를 꾀하기로 한 지난 3월 30일의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는 신동일 지도교수와 김신배(3기 회장), 김무호(4기 회장) 동문 등 각 기별 회장과 회원 등 50여 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오제직 동창회장과 최석남 상임부회장, 홍춘표 사무총장, 백옥현 총무 등 본부 임원진과 두 시간여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동창회 본부 임원진과 보령지구 최고지도자과정 동문 소개에 이어 오제직 동창회장의 인사, 신동일 지도교수의 최고지도자과정 소개, 동문 상호간의 친교와 결속을 다지는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제직 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로서 변화와 혁신으로 개인의 발전과 함께 동창회 활성화에 이바지해줄 것을 동문들에게 당부했다. 참석 동문들은 공주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 동문의 긍지를 안고 지역사회는 물론 동창회 발전에 더욱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보령지구 최고지도자과정은 1994년 첫 과정(제3기, 74명 수료)이 개설된 이후 6개 기수 379명이 수료했으며, 현재 일곱 번째 기수인 14기 과정 71명이 이수 중에 있다.

오제직 동창회장 중국 상해 한국국제학교 방문



오제직 총동창회장(현 충청남도교육감)은 5월 12일 중국 상해 한국국제학교(교장 이길현: 역사교육과 29회, 국제교육진흥원 소속)를 방문하여 도서를 기증하고 동교에 근무하는 모교 동문들을

격려했다. 오제직 동창회장의 상해 국제학교 방문에는 김광섭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이대구 상임이사가 함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이길현 교장을 비롯하여 홍금숙(35회, 지리교육과 졸업, 경기 고색중), 최경목(35회, 미술, 경기과전중앙고), 양승옥(35회, 중국어교육과, 충남 용남고), 임진환(36회, 음악교육과, 충남 은양용화고), 송미영(37회, 영어교육과, 충남 천안부성중), 임영선(40회, 생물교육과, 서울경정보고), 정석범(40회, 물리교육과, 대전 대문중) 동문 등이 함께하여 이국에서의 동문의 정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임진환 동문과 정석범 동문(대학동아리 '칸타빌레' 회원)은 대학시절에 익혔던 대금 실력과 기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흥겨운 자리를 만들었다.

오제직 총동창회장은 이날 낮 상해임시정부청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홍구공원을 다

전주교대 총장에 나기연(27, 영어) 동문



1990년 전주교대 교수로 임용돼 기획연구실장,

전주교대 제5대 총장에 나기연(27, 영어) 동문이 지난 5월 3일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나기연 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전북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교무처장, 호남영어교육학회부회장 등을 지냈다.

나기연 동문은 “교육·연구활동 활성화, 교육기반시설 확충, 행정운용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교원양성대학’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나기연 동문은 역시 모교 동문인 이용숙(18, 국어) 전임 총장의 뒤를 이어 9월 1일부터 4년간 전주교대를 이끌어나가게 된다.

너왔다면서, “공주대학교의 동문으로서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교민 교육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 회장은 공주대학교 동문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자에서 타국에 있는 교민들의 교육까지 책임을 지는 국제적인 교육자의 중차대한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함으로써 공주대 출신의 멋진 교육자가 되자”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옥, 임진환 동문은 모교동창회장의 건립을 위해 써달라고 각각 일금 200,000원을 내놓았다.

교장 자격연수 동문 격려

김기성(19, 화학) 동문 등 24명의 동문이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2006년 제2차), 오진택(21, 교육)동문 등 26명의 동문이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제3차)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중등교장자격연수를 받았다. 동창회에서는 매 차례로 동문들을 방문하여 교원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찬을 대접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 2006. 제2차(5. 8 ~ 6. 16) 교장 자격연수

동문 명단

▶ 김기성 (19, 화학) 충북 목도고등학교 ▶ 김용문 (21, 화학) 인천 작전고 ▶ 이창근 (22, 국어) 충북 청주시 가경중 ▶ 최춘배 (22, 수학) 경기 파주 파평중 ▶ 정규훈 (22, 지구) 경기 광주근지암중 ▶ 장호형 (22, 지구) 부산 금정여고 ▶ 이남우 (22, 체육) 대전 갑천중 ▶ 성진경 (23, 물리) 대전 대전서중 ▶ 정 희 (23, 지구) 충북 과학고 ▶ 김화태 (23, 지구) 충북 청원군 현도중 ▶ 원정식 (23, 화학) 충북 청주시 청주동중 ▶ 강용재 (24, 물리) 인

천 인천고 ▶ 정익균 (25, 역사) 경기 부천부곡중 ▶ 오혜성 (25, 영어)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 전용남 (26, 수학) 인천 서운고 ▶ 김진완 (26, 화학) 청주시 금천중 ▶ 홍성도 (27, 물리) 전라북도교육청 ▶ 김창호 (27, 지구) 충북 청원 미원중 ▶ 이정범 (27, 지리) 경기 평택중학교 ▶ 박태환 (28, 교육) 경기도제2교육청 ▶ 차종석 (28, 수학) 경기제2교육청 ▶ 조운숙 (29, 체육) 경기제2교육청 ▶ 박영조 (30, 지리) 인천 계산여고 ▶ 강대순 (30, 체육) 울산 태화중

• 2006. 제3차(6. 19 ~ 7. 21) 교장 자격연수

동문 명단

▶ 오진택(21, 교육) 충주중학교 ▶ 고광준(22, 일사) 목포 제일중학교 ▶ 홍기섭(22, 화학) 충주여자중학교 ▶ 한명택(23, 국어) 전주 호성중학교 ▶ 홍태식(23, 지리) 교하고등학교 ▶ 이완태(23, 화학) 목포중앙여자중학교 ▶ 백용주(24, 체육) 전주 풍남중학교 ▶ 전호신(25, 불어) 경기 수지중학교 ▶ 이덕남(25, 일사) 설봉중학교 ▶ 류정렬(25, 지구) 여주여자중학교 ▶ 양청옥(26, 불어) 봉담중학교 ▶ 김복권(26, 물리) 여선중학교 ▶ 임현영(26, 생물) 동성중학교 ▶ 채한기(26, 지구) 제천여자중학교 ▶ 최승복(28, 영어) 수리고등학교 ▶ 류해철(28, 독어) 신갈중학교 ▶ 이은원(28, 수학) 가평교육청 ▶ 윤덕렬(28, 물리) 부평여자고등학교 ▶ 신원섭(28, 체육) 성남교육청 ▶ 박형재(29, 일사) 주엽고등학교 ▶ 신희철(29, 지리) 퇴계원중학교 ▶ 이웅구(29, 역사) 청명고등학교 ▶ 민병성(29, 체육) 부천남중학교 ▶ 신광철(29, 체육) 영덕중학교 ▶ 김명래(32, 일사) 영덕고등학교 ▶ 이건호(33, 상업) 교육인적자원부

동문 124명 모교에서 1정 자격연수

여름방학 중인 지난 7월 18일(화)부터 8월 22일(화)까지 모교 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에서 동문 124명이 2006년도 1정자격연수를 받았다. 과목별 연수동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 문

▶ 강기일 대전문지중학교 ▶ 강상석 논산고등학교
▶ 김상연 천안두정중학교 ▶ 김선주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 김현옥 대전둔원중학교 ▶ 신진섭 대전만년중학교 ▶ 윤미숙 대전어은중학교 ▶ 이병준 예산여자고등학교 ▶ 임명호 재송중학교 ▶ 전희정 천안두정중학교 ▶ 정소영 예산여자중학교 ▶ 하정화 무극중학교

국민윤리

▶ 권문경 온양중학교 ▶ 김성태 온양중학교 ▶ 김수미 대전봉산중학교 ▶ 김지은 천안동여자중학교 ▶ 김태영 공주공업고등학교 ▶ 박영록 서산여자고등학교 ▶ 백민영 한밭중학교 ▶ 양민주 공주여자고등학교 ▶ 양진영 천안봉서중학교 ▶ 오재원 천안중앙고등학교 ▶ 이금주 대전갑천중학교 ▶ 이운표 한내여자중학교

일반사회

▶ 권민정 부여고등학교 ▶ 김기수 한산중학교 ▶ 김문광 천안성정중학교 ▶ 김현숙 천안서여자중학교 ▶ 박은숙 충주고등학교 ▶ 오완석 대전예술고등학교 ▶ 이선미 천안중앙고등학교 ▶ 이수지 부여전자고등학교 ▶ 이연희 천안두정고등학교 ▶ 정진철 군산여자고등학교 ▶ 최계홍 합덕여자고등학교

지 리

▶ 강남숙 당진중학교 ▶ 강희란 병천중학교 ▶ 고연란 광천정보고등학교 ▶ 김정미 천안성정중학교 ▶ 김진연 금산여자고등학교 ▶ 박성계 대전북고등학교 ▶ 우희진 예산여자고등학교 ▶ 이귀례 고북중학교 ▶ 이인희 웅천고등학교 ▶ 정우준 대전한빛고등학교 ▶ 주성연 합덕여자고등학교 ▶ 최희진 천안두정중학교

공통사회

▶ 조진희 삼량중학교

물 리

▶ 박고운 온양여자고등학교 ▶ 신흥정 웅천고등학교 ▶ 오선숙 대전고등학교 ▶ 유동준 태안고등학교 ▶ 정은영 서천여자고등학교

화 학

▶ 민병욱 당진중학교 ▶ 윤경미 천안오성중학교 ▶ 최은정 서산고등학교

공통과학

▶ 박미경 만수여자중학교 ▶ 임신희 천안두정중학교 ▶ 최주영 화도진중학교

생 물

▶ 김혜선 천안중학교 ▶ 변선영 한밭고등학교 ▶ 이은주 대전송촌고등학교 ▶ 이재궁 성환중학교 ▶ 한광경 홍성여자중학교

지구과학

▶ 고수정 순성중학교 ▶ 김종연 천안쌍용고등학교

체 육

▶ 김상민 대전체육고등학교 ▶ 김태연 천안두정고등학교 ▶ 박재규 보령중학교 ▶ 송건용 동대전중학교 ▶ 양재호 합덕중학교 ▶ 원지연 대전남선중학교 ▶ 이기성 예산여자중학교 ▶ 이정민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음 악

▶ 강영신 천안성정중학교 ▶ 김성애 천안여자중학교 ▶ 김주현 연무중학교 ▶ 류황미 대천여자고등학교 ▶ 선주현 온양고등학교 ▶ 이지혜 목천고등학교 ▶ 전정남 성연중학교 ▶ 천지현 도고중학교 ▶ 최수현 서산중학교

정보컴퓨터

▶ 문광식 천안부성중학교 ▶ 송화영 대전문화여중학교 ▶ 이경희 천안성성중학교 ▶ 이병만 천안쌍용고등학교

사 서

▶ 고유미 부경고등학교 ▶ 권삼중 성동초등학교 ▶ 김원미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 ▶ 류순봉 인현고등학교 ▶ 박은영 금산여자고등학교 ▶ 박현주 의성초등학교 ▶ 방현경 수곡중학교 ▶ 손민영 제천여자고등학교 ▶ 유혜선 분당중앙고등학교 ▶ 이선희 화수고등학교 ▶ 이선희 내성고등학교 ▶ 이은미 양지고등학교 ▶ 이충연 천안여자중학교 ▶ 이호연 광명고등학교 ▶ 장미연 원주초등학교 ▶ 장소영 인일여자고등학교 ▶ 최경숙 무학여자고등학교 ▶ 최승락 영락고등학교 ▶ 홍정운 광명동초등학교 ▶ 황선희 서울농학교

가 정

▶ 고귀순 고북중학교 ▶ 김혜진 당진고등학교 ▶ 노영숙 공주북중학교 ▶ 안영애 대전정림중학교 ▶ 이정원 예산여자고등학교 ▶ 이진영 대전관저중학교

역 사

▶ 김근초 장항공업고등학교 ▶ 정혜란 청양정산고등학교 ▶ 김선희 당진중학교 ▶ 김혜련 합덕여자고등학교 ▶ 박지연 목천중학교 ▶ 오연수 천안여자고등학교 ▶ 윤지영 태안고등학교 ▶ 윤해정 병천중학교 ▶ 이미진 비인중학교 ▶ 이제은 계양중학교 ▶ 한은희 천안오성중학교

제5대 교육위원에 모교 동문 6명 당선

7월 31일 실시된 제5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국에서 여섯 명의 동문이 당선되었다. 지역별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 서 울

▶ 박현화(19, 화학) 전 강남교육장

• 경 기

▶ 강관희(27, 체육) 경문대 교수

• 충 남

▶ 장광순(12, 화학) 전 보령교육장

▶ 이성구(14, 생물) 전 천안교육장

▶ 김지철(23, 영어) 천안신당고등학교 교사

• 전 남

▶ 서기남(14, 국어) 전 여수교육장

동문 교명반대 서명지 모교에 전달

교명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총동창회에서는 8월 1일 1차로 1,283명의 동문들의 서명을 받은 서명지 152매를 모교 김재현 총장에게 전달하고 교명변경 반대에 대한 동문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알렸다.

동창회 교명변경 관련 공주시, 의회 방문

동창회에서는 모교 교명변경과 관련하여 지난 8월 9일 오전 최석남 상임부회장과 홍춘표 사무총장이 공주시와 공주시의회를 방문하였다. 최 상임부회장과 홍 사무총장은 이날 이준원 공주시장과 이동섭 공주시의회 의장을 집견하고 교명변경 불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교명변경 불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아울러 교명변경이 불가한 이유와 총동창회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8월말 퇴임동문에 감사장 전달

동창회 본부에서는 2006년 8월말로 정년 및 명예퇴임을 한 동문들에게 일평생 교육현장에서 헌신한 노고를 기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동창회장의 감사장을 보냈다. 퇴임동문은 다음과 같다.

• 인천지부

- ▶ 김인철(16, 화학) 인천여자고등학교 교장
- ▶ 이은길(17, 수학) 만성중학교 교장

• 경기지부

- ▶ 장희성(19, 교육) 숙지고등학교 교장

• 전북지부

- ▶ 조찬귀(17, 수학) 전주양지중학교 교장

• 대전지부

- ▶ 김명세(15, 체육) 만년고등학교 교장
- ▶ 김양환(16, 체육) 대전대덕고등학교 교사
- ▶ 김수중(17, 체육) 대전체육중고등학교 교장
- ▶ 황건하(22, 일사) 대전용전중학교 교사

• 부여지부

- ▶ 김정웅(21, 생물) 은산중학교 교장

• 연기지부

- ▶ 이강일(17, 국어) 조치원여자중학교 교감

• 충북지부

- ▶ 조문수(14, 국어)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 ▶ 안영훈(17, 국어) 충북공업고등학교 교사
- ▶ 박수용(17, 국어) 청주고등학교 교장

• 전남지부

- ▶ 안형남(17, 영어) 나주여자고등학교 교장

- 회관건립기금 입금계좌 -

- 농협중앙회 : 450-01-006361(재단법인동창회)
- 우체국 : 312314-01-005249 (재단법인 동창회)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각 학과 동창회 개최 소식

- 영어교육과 : 8월 4일(금) 오후 5시 모교 연구관 강당
- 물리교육과 : 8월 5일(토) 오전 11시 모교 연구관 강당

- 체육교육과 : 8월 12일(토) 오전 10시 모교 자료도서관 시청각실
- 음악교육과 : 8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모교 음악관 강당

최재석(14, 영어) 동문 저서 문광부 우수 학술도서 선정



최재석(14, 영어, 충남대학교수) 동문의 저서 <그레이엄 그린의 소설: 인간 이해와 신앙> (한신 문화사, 사진)이 문화관광부에서 뽑은 2006년도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호주 퀸스랜드 대학교에서 그레이엄 그린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 동문은 오랫동안 20세기 영국의 작가 그레이엄 그린의 소설을 연구해왔다. 이 책은 그가 국내에서 펴낸 네 번째 그린 연구서이다. 최 동문은 한국의 영문학자로서는 드물게 미국에서 두 권의 그린 연구서를 내기도 했다.

이번에 낸 책에서 최 동문은 그린 문학을 신학적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가톨릭 작가인 그린

의 작품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는 신학대학원에서 현대신학과 문학의 관계를 연구한 바 있다. 전통적으로 인간 이해와 종교적 신앙은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최 동문은 그린의 작품 세계에서 인간 이해와 종교적 신앙이 그리고 소설과 현대신학이 손잡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레이엄 그린의 소설: 인간 이해와 신앙>은 그린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달우(28, 교육) 동문 <잡초교육론> 발간



모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직 중인 이달우(28, 교육) 동문이 저서 도서출판 양서원에서 <잡초교육론>을 발간했다. 이 동문은 이 책에서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나라 일이 잘 되려면 교육이 잘 돼야 하고, 교육이 잘 되려면 그 근본이 튼튼해야 한다. 지엽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 하찮은 잡초의 강인한 생명력에서 교육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의 르네상스 시대

를 열 수 있다. 교육 르네상스의 빛장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교사이다. 교육의 최전선은 교실이며, 교단을 지키는 교사가 교실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혁명은 교실혁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교실혁명은 교사의 인격혁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관우(30, 독어) 동문 <괴테 자서전> 완역



<괴테 자서전>(독일어판 제목 <내 생애에서: 시와 진실>)이 모교 독어독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관우(30, 독어) 동문에 의해 완역되어 출간되었다. 도서출판 우물이 있는 집에서 출간한

1116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에서는 문학에 대한 괴테의 열정과 노력뿐만 아니라 그가 성장하면서 품었던 종교, 사상, 과학 등에 대한 방대한 관심과 회의, 철저한 고민이 드러나 있다.

이 책은 괴테 전집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함부르크판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

중역되어 나오거나 부실한 판본을 번역하면서 생긴 오류들을 바로잡았다. 또한 이 책에서는 괴테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알고 지냈던 당시 유럽인들의 사진이나 그림들을 가능한 한 많이 입수하여 화보에 실거나 본문을 읽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



교수 43명 신규 임용

모교는 지난 4월 1일자로 신규교수 43명을 대거 임용했다. 신규 임용된 교수는 다음과 같다.

- ▶ 이재규(전임강사, 사범대 교육학과) ▶ 박혜준(전임강사, 사범대 특수교육과) ▶ 전대열(조교수, 사범대 수학교육과) ▶ 장창기(조교수, 사범대 생물교육과) ▶ 김보희(조교수, 인사대 독어독문학과) ▶ 송충기(전임강사, 인사대 사학과) ▶ 정재운(전임강사, 인사대 사학과) ▶ 장동호(전임강사, 인사대 지리학과) ▶ 남수중(조교수, 인사대 경제통상학부) ▶ 최선(전임강사, 인사대 무용학과) ▶ 송정훈(조교수, 자연대 물리학과) ▶ 김용기(조교수, 자연대 물리학과) ▶ 홍인석(조교수, 자연대 화학과) ▶ 유영한(조교수, 자연대 생명과학과) ▶ 신동복(조교수, 자연대 지질환경과학과) ▶ 조남철(전임강사, 자연대 문화재보존과학과) ▶ 윤혜려(전임강사, 자연대 외식상품학과) ▶ 최계광(전임강사, 공대 기계자동차공학부) ▶ 이기석(조교수, 공대 기계자동차공학부) ▶ 박성영(전임강사, 공대 기계자동차공학부) ▶ 안우영(전임강사, 공대 건설환경공학부) ▶ 김경석(부교수, 공대 건설환경공학부) ▶ 유수훈(전임강사, 공대 건축학부) ▶ 정경열(조교수, 공대 화학공학부) ▶ 고영수(조교수, 공대 화학공학부) ▶ 정운진(조교수, 공대 신소재공학부) ▶ 조국영(조교수, 공대 신소재공학부) ▶ 홍순직(전임강사, 공대 신소재공학부) ▶ 이종원(전임강사, 공대 환경공학과) ▶ 김유진(전임강사, 공대 영상광정보공학부) ▶ 한기호(조교수, 공대 영상광정보공학부) ▶ 정지윤(전임강사, 산업과학대 특수동물학과) ▶ 김상기(전임강사, 산업과학대 특수동물학과) ▶ 정남수(전임강사, 산업과학대 생물산업공학부) ▶ 김웅(전임강사, 산업과학대 생물산업공학부) ▶ 조용현(조교수, 산업과학대 조경학과) ▶ 김영배(전임강사, 영상보건대 보건학부) ▶ 홍성애(전임강사, 영상보건대 보건학부) ▶ 이동열(전임강사, 영상보건대 게임디자인학과) ▶ 김건수(전임강사, 영상보건대 조형디자인학부) ▶ 김성민(전임강사, 영상보건대 조형디자인학부) ▶ 이원석(전임강사, 영상보건대 만화학부) ▶ 김준(전임강사, 영상보건대 만화학부)

200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거행



200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4일(금) 오전 11시 모교 음악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06명, 석사 185명, 박사 11명 등 모두 402명이 학위를 받았다. 김재현 총장은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만큼 남다른 진리탐구정신으로 도전하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제5대 김재현 총장 취임



모교 제5대 김재현 총장의 취임식이 6월 22일(목) 오후 2시 모교 음악관 강당에서 열렸다. 내외 귀빈과 교직원 및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취임식에서 김재현 총장은 "대학입학자원의 격감,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교육개방, 국립대법인화 정책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한 자산규모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갖고 있는 지방대학일수록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는 격랑의 위험한 파고를 헤쳐나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공주대학교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주-예산-천안지역 모두를 포용하며 대한민국을 아우를 수 있는 교명으로의 변경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재현 총장은 "공주캠퍼스는 한민족 교육의 메카로 지역특성화를 주도하고, 예산캠퍼스는 농생명 분야의 동북아 중심으로, 천안캠퍼스는 기업주도형 산학연관 융합형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취·임·사

오늘 이 영광스럽고 뜻 깊은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원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왕림하여 주신,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동창회원,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공주대학교 제5대 총장으로 취임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벅찬 감격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사명감을 가슴 깊이 느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그리고 대학 가족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은 1948년 공주사범대학으로 출발하여 올해로 58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이 60년 역사는 단순히 우리 대학의 역사를 넘어, 해방 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인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 환경의 변혁기마다 그 맥락을 같이 하며, 우리나라 중등 교원 양성의 메카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내며 전국에 그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이제는 91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후, 92년 예산농업대학, 2001년 공주문화대학, 2005년 천안공과대학과 통합하여 4개 캠퍼스, 6개 단과대학, 7개 대학원을 보유한 충남 유일의 거점 국립대학교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그리고 공주대 가족

여러분!

지난날 우리나라 대학은 낭만이 어우러진 상아탑의 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학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정부의 교육 정책 또한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변화와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자원의 격감, 대학정보의 공시제도 도입, 교육개방과 국립대 법인화 정책 등으로, 미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의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입학자원의 감소로 경쟁력 없는 학과가 폐지되거나 심지어 대학 자체도 속속 문을 닫는 사태가 머지않아 오리라 예측됩니다. 특히 영세한 자산 규모, 열악한 교육 환경과 연구 여건을 갖고 있는 지방대학일수록 대학의 모든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이 격랑의 위험한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대학에게는 위기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큽니다. 200만 충청도민과 전국 어느 지역보다 빠른 속도론 발전하는 경제와 산업, 수도권 진출이라는 확실한 대학발전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후발 국립대학이라는 그동안의 꼬리표를 떼고 이제는 명문 국립거점대학으로 탈바꿈하여 대대손손 자긍심을 갖는 자랑스런 대학

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학 구성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취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교수님!

지금 우리 대학은 무엇보다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우리 대학의 희망이요, 국가와 민족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 인류와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21세기형 유능한 인재로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학문적 열정과 성취도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實事求是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질의 교육과 실천적 연구력의 향상을 위해 재임기간동안 신입교수 임용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 경쟁력 있는 스타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내실있는 국제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재정의 획기적 확충, 연구인센티브 확대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

작금의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졸업생들이 좋은 직장에 얼마나 많이 취업하느냐가 명문대학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실패률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이 어려운 취업환경을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는, 적극적이며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함양하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주인의식으로 자기 개혁에 심혈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닌 모교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학문에 매진하고 충실하게 대학생활을 해야 여러분도 발전하고 또한 모교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공주대 학생인 것에 긍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청춘을 바쳐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는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창의적인 세계인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인성 교육의 강화, 학생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교육여건 개선, 학생취업을 최우선 하는 행정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원만한 학사일정과 대학 행정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에 대해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대학 학생들과 교육 연구에 대한 지원자적 역할에 덧붙여 앞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따뜻한, 정성이 깃 들인 실천적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경쟁력 있는 대학구조로의 개편과 경영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여러분들의 밑알 같은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대학은 그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항상 창의적인 생각과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맡은 바 업무에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이 넘치는 대학, 감동이 머무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대학 구성원의 후생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면 오히려 기분 좋은,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가 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내외 귀빈 그리고 대학 가족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대학이 '공주'라는 지역에 국한되어 '작은 대학', '로컬 대학'으로 머물러있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대학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주-예산-천안지역 모두를 포괄하며 대한민국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교명으로의 변경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지역발전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각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 중심축으로서 지역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공주캠퍼스는 한민족 교육의 메카로 지역 특성화를 주도하고, 예산캠퍼스는 농생명(BT) 분야의 동북아 중심으로, 천안캠퍼스는 기업주도형 산학연관 융합형 이공계 특성화대학을 구축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많은 대학들의 특성화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재임기간 동안 이미 약속드린 3대 비전,

즉'새로운 교명과 제 2의 창학, 국립대 5위권 명문대학, 새로운 모델의 산학협력 중심 대학'을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오랜 희망인 포스트 공주시대를 열어 4년 후 우리 대학브랜드를 '다이아몬드(DIAMOND)'처럼 값비싼 명품 대학의 반열에 반드시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 됨을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함께 헤쳐 나아간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대학 가족 여러분과 우리 대학을 아끼시는 모든 분들 모두의 학교 사랑과 응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범인화를 대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대학을 명문대학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과감한 대학 혁신과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개인적으로나 학과나 부서 단위의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승적으로 이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학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 2의 창학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하도록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 6. 22.

신임총장의 교명변경 추진에 대한 총동창회 입장

총동창회는 신임총장이 취임과 동시 교명변경작업에 착수하여 이를 한 달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각별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였다 이에 총동창회는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선 취임 후 한 달 이내에 교명변경을 매듭짓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명칭으로든 무조건 현재의 교명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성급한 교명변경은 변경을 위한 변경이 될 수밖에 없고, 총장선거과정에서의 공약이행이라는 사소한 명분에 대의를 맡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공주대학교라는 교명의 본원적 탁월성과 국가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시안들을 감안하면, 교명 변경이 잘못 이루어졌을 경우 오히려 학교발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주대학교 교명의 변경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공주대학교'라는 교명이 다른 2개의 캠퍼스가 입지한 예산과 천안의 지명과 불일치하고 있고, 그나마 중소도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공주대학교 발전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주대학교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현재와 같은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주'라는 도시의 역사성과 과거의 공주사범대학 및 현재의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의 명성, 그리고 1948년 이후 배출된 모교의 동문들의 헌신적 애교심과 공주대학교 전체 구성원의 노력 덕분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행 공주대학교 교명에서 '공주'를 떼어버리고 새로운 교명을 붙일 경우, 원만한 신입생 모집을 과연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과거 공주사범대학에서 공주대학으로 변경되었을 때 추락한 모교의 명성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다. 교명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이와 같은 일이 재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교명 변경으로 이와 같은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주대학교의 명칭은 역사성과 함께 계속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명칭이 작은 지역을 의미한다고 하여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학의 명칭은 대학의 발전에 부응하여 의미가 더욱 확장된다. 세계의 우수대학이 그 이름이 거창하여 좋은 대학이 된 것이 아니라, 비록 이름은 작은 지역을 뜻하였지만 내실 있는 대학이 됨으로써 좋은 이름이 되었다. 또한 공주라는 지명은 2002년 12월 신형 정수도 건설이 대선공약으로 등장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보편적 지명으로, 지명도에서 어느 이름보다 앞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교명은 나름대로의 본원적 가치를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충분히 갖고 있다. 향후 국립대학 구조 개혁 등에 의하여 공주대학교의 정체성이 변경될 때까지는 현행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교명 변경은 공주대학교의 향방에 중대한 기로가 될 뿐만 아니라 공주대학교 구성원 전체의 생존권과도 관련된 문제이므로, 대학의 전통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그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체 대학구성원 및 동문의 의사와 나아가 지역사회의 여론까지도 다각적으로 수렴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천안 예산 연기 공주 지역은 모두 옛 백제문화권이었으며, 그 지역의 중심은 웅진, 공주이었다. 우리 4만여 동문들은 공주대학교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공주>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영원히 이름나기를 기대한다.

2006년 6월

공주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이 글은 지난 6월 21일 모교 신임 김재현 총장에게 공문으로 전달되었다.)

신임총장에게 바라는 글



총동창회장 오 세 직

이 글은 6월 28일자
'공주대신문'에 게재된 것임

김재현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동창회는 의욕과 패기가 넘치는 김 총장님이 공주대학교 제5대 총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지금 모교 공주대학교는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상황을 헤쳐 나가 굳건한 도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4만5천여 동문들은 모교의 현안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 21세기 공주대학교의 웅비를 기약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으고, 적극적인 측면지원을 통해 모교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있을 것입니다. 총장님을 구심점으로 4만5천여 동문들이 원심력이 되면 모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총장님께서서는 우리 공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공약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제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전 교육 반세기의 든든한 토대를 기초로 종합대학교로 발전하였고, 이제는 공주-예산-천안의 특성화된 삼각캠퍼스를 구축하여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모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우리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캠퍼스별 특성화와 함께 각 캠퍼스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국립대학 5위권 도약 등이 공주대학교라는 멋진 이름으로 융합되는 모습은 우리 동문들의 큰 소망입니다.

그러나 모교발전의 청사진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동창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교명변경과 충남대학교와의 통합 논의가 다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명은 글자 그대로 학교의 이름입니다. 유명한 대학이 이름이 거창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우수한 대학은 한결같이 지역의 작은 이름을 따서 이루어졌으며, 유구한 역사에 값하여 동문들의 사랑을 받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우리 공주대학교가 먼저 멋진 캠퍼스를 확보하고 세계 속에 발전하는 우리 모교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주대학교는 세계 속에서 손색이 없는 이름입니다. 또한, 충남대학교와의 통합은 우선 우리대학의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거점대학으로 육성된 후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주·연기지역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교육적 진출은 충남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우리 공주대학교가 가지는 당연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우리 모교 경영의 최고 CEO로서 총장후보당시 제시하신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시어 우리의 기억 속에 길이 남을 총장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주대학교총동창회

수 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 조 대학지원국장(대학정책과장)
 제 목 공주대학교 교명에 대한 공주대학교총동창회 의견

1. 공주대학교 기획연구과-1195(2006.06.16)와 관련입니다.

2. 공주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구체적으로 교명변경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가명(한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은 공주대학교의 교명변경을 전제로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어 공주대학교 총동창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오니 교육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명변경 반대 사유 -

1. 대학의 발전은 우수한 교수진, 우수한 입학자원, 충분한 재원투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단지 교명을 변경한다고 해서 대학이 발전하는 것은 아님

2. 공주대학교가 예전이나 현재와 같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공주"라는 도시의 역사성과 과거 우리나라 중등교사 양성의 요람으로써 국립공주사범 대학의 명성, 그리고 1948년 이후 배출된 수만 명의 졸업생들(현재도 2만여 출신이 전국에서 교직에 종사하고 있음)이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인재양성에 노력한 헌신적인 애정과 노력의 결과로서 교명을 변경할 경우, 이러한 역사성과 정체성이 일거에 파괴될 수 있고, 공주대학교의 지속적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음.

3. 공주대학교가 공주대학교 총동창회와 공주사대부속고 동창회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5만여 동문들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교명변경 반대와 관련하여 공주시와 시민단체들이 공주대학교에 항의 방문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시위를 하였음.

4. 특히,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학교가 그 지역명을 사용하여 교명을 칭하고 있으며(예, 강원대, 충북대, 부산대, 경북대 등등)한국이라는 고유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특성화 대학의 경우(한국교원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로서 일반종합대학교인 공주대학교가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예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도 연상할 수 없게 되어 60년의 고유한 전통마저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물론 대학발전에 크나큰 역기능을 가져올 것임.

5. 교명 변경은 공주대학교의 향방에 중대한 기로가 될 뿐만 아니라 공주대학교 구성원 전체의 생존권과도 관련된 문제이므로, 대학의 전통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그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또한 전체 대학구성원 및 동문의 의사와 나아가 지역사회의 여론까지도 다각적으로 수렴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첨부 1. 공주대학교총동창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교명변경 반대결의문 1부.
 2. 교명명칭 반대활동 내역 1부. 끝.

공주대학교총동창회장

(이 공문은 지난 7월 11일 교명에 관한 총동창회 입장을 담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앞으로 발송한 것임)

<별첨 1>

교명 변경에 대한 2006 공주대학교 총동창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결의문

모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명변경에 대하여 공주대학교 총동창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공주대학교 총장은 교명변경추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교명 변경에 대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중지하라.
2. 5만여 동문들은 교명변경반대 서명운동을 즉각 전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2006. 7. 2.

공주대학교총동창회

<별첨 2>

교명변경 반대에 대한 경과

- 2004. 5. 23 공주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교명변경반대 결의문 채택
- 5. 25 공주대학교 총장에게 정기총회 결의문 통보
- 5. 31 공주대학교 교명제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교명변경 부당성을 서면 전달
- 7. 12 교명변경반대에 대한 동문 서명지 공주대학교에 전달(1,359명)
- 11. 12 교육인적자원부 담당과장 면담에서 교명변경 반대이사 전달
- 2005. 3 ~ 공주대학교총동창회 회보 및 서신을 통한 교명변경반대활동 전개
- 2006. 3. 30 공주대학교 제5대 총장임용후보자의 교명변경 공약에 따라 공주대학교총동창회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교명 변경 반대 결의
- 2006. 6. 21 "신임총장의 교명변경 추진에 대한 총동창회 입장"을 공주대학교 총장에게 서면으로 전달
- 2006. 6. 26 "총장 취임 기념 공주대학교 신문사 특집"에 공주대학교 교명변경에 대한 공주대학교총동창회의 반대 의사 원고 투고
- 2006. 7. 2 2006 공주대학교공주대학교총동창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교명변경 반대 결의문 채택
- 2006. 7. 4 "2006 공주대학교공주대학교총동창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결의문"을 공주대학교 총장에게 서면으로 전달

교명변경과 충남대학교와의 통합 논의에 대한 2006 공주대학교 총동창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결의문

모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명변경과 충남대학교와의 통합 논의에 대하여 공주대학교 총동창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교명변경에 관한 결의문

- 공주대학교 총장은 교명변경추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교명변경에 대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중지하라.
- 5만여 동문들은 교명변경반대 서명운동을 즉각 전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 충남대학교와의 통합논의에 대한 결의문

- 공주대학교는 충남대학교와의 통합논의에 대한 모든 행정적 사항을 중지하라.
- 공주대학교는 모교의 자체적인 특성화 발전 방안을 모색하라.

2006. 7. 2.

공주대학교총동창회

교명변경 관련 고문단회의개최

교명변경반대 투쟁위원회 결성키로

총동창회 고문단회의가 9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공주 금강농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화영, 신대현, 최명실, 이춘우, 송원섭, 김승동 고문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제직 동창회장의 인사말과 최석남 상임부회장의 교명변경반대활동 경과보고에 이어 교명변경문제에 대한 고문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명변경반대 투쟁을 위해 교명변경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키로 결의하고, 위원장에 이화영 고문, 부위원장에 신대현 고문을 선출했다. 또한 상임위원장에 이춘우 고문, 상임부위원장에 김승동 고문, 감사에 최석남 상임부회장과 김영유 이사를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쟁위원회를 고문단과 각 지부장, 상임이사들로 구성하기로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시의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명변경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투쟁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 지부장회의를 9월 16일(토) 오후 대전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문들은 공주시 상가변영회뿐만 아니라 시와 시의회가 주체가 되어 전시민적 교명변경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고문은 총장 퇴진운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학측이 요구하고 있는 동창회와의 간담회는 교명변경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전체 동문의 강력한 의사결집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7월 2일 정기총회에서 교명변경반대를 주장하는 고문단〉

월송(月松) 이선자 동문 (15, 가정)



**“충청남도 최초의
여성 교육장으로 임용”**

이선자(15, 가정) 동문은 충남당진에서 태어나 1966년 모교 가정교육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가정관리학을 전공했다. 이 동문은 당진여중, 공주농고, 공주여고, 부여여고, 강경여고에서 교사생활을 하는 동안 가정과 실기경진대회 조리·양재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입상하는 등 학생지도에 열정을 바쳤다. 이 동문은 1988년 교감시험에 합격하여 충무교육원, 충남교육연수원,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를 거치면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그 후 이 동문은 조치원여고 교감, 연기교육청 학무과장, 공주교육장을 거쳐 공주여중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했다.

이선자 동문은 1995년 장학사 시절 충남중등가정연구회를 창립하여 10여년 간 기반을 튼튼히 다졌으며, 중등여교장회장으로 교육력 제고에도 헌신했다. 이 동문은 특히 2000년 3월 충청남도 최초의 여성 교육장으로 임용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선자 동문은 동창회 발전에도 기여하여 초대 가정교육과 동창회장을 맡은 후 5대까지 연이어 회장으로 헌신한 바 있다. 또한 2004년부터 2년 동안 동창회 공주지부 회장을 맡아 지부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한편 이선자 동문은 2006년 2월 부군인 고 강충식 모교 사범대학장의 제자사랑 정신을 기리고 인재육성을 돕기 위해 1억원을 기탁하여 설립한 '덕천 강충식학장 장학회'를 통해 매 학기 모교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최초로 4명의 모교 재학생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선자 동문은 현재 제8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남여성포럼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다. 또한 충청장학회 이사, 민주평통 자문위원, 충남과학교육원 행정자문위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하고 있다.

긴 인연(因緣)

윤 석 조 (9, 물리)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늙은이는 추억에 산다”

우리모임에 꼭 함께 참석했던 C형이 뇌일혈로 병원에 입원중이라, 나 혼자 가기가 좀 망설였지만, 혼자라도 꼭 참석하여 달라는 친구들의 권유도 있고, 올 봄 모임에도 참석 못하여서, 거듭 불참하는 것도 친구들에게 미안하여 참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모이는 장소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라 길도 모르고 걱정스러웠는데, 총무인 P형이 천안에서 만나 함께 가자고 하여, 그 방법을 따르기로 하였다.

아내가 운전하며 전주 역까지 데려다 주어 기분 좋은 얼굴로 아내를 돌려보내고, 대합실에 들어가 수첩과 휴대전화를 찾아보니 손에 잡히지 않아, 호주머니들을 뒤져보았으나 지갑과 천안까지 가는 승차권만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타고 가야할 열차가 곧 도착 한다는 안내 방송이 있었다. 이런 상태로 천안까지 가보아야 P형을 만날 수 없어서, 우선 승차권을 물리고 대합실을 빠져나와 택시로 집에 와 보니, 다행히 아내는 집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아침에 쟁겨 놓았던 자리에 휴대전화와 수첩이 그대로 있었다. 반갑게 집어 들고 열린 집을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가면서 P형에게 휴대전화로 내 사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열차승차권을 예매(豫買)하고 오는 길에, 천안행 직행버스 시간표를 알아놓기를 잘하였다고 자위(自慰)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천안행 버스에 승차하고 보니, 승객이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아 차는 텅 빈 채로 고속도로를 달렸고, 차창 밖으로 전개되는 늦가을 산과 들의 경치(景致)를 바라보다가, 공주지역을 지나면서는 내 눈이 공주시내 쪽으로만 갔다.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늙은이는 추억에 산다.’드니, 흘러가버린 추억들이 들추어지고 있었다. 버스는 어느새 고속도로를 벗어나 천안시내로 들어가고 있는데, 휴대전화에서는 P형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출구 쪽을 보니, 나를 부르면서 손을 흔들고, 웃고 있는 P형의 모습을 보았다. 반가운 얼굴이었다.

서울에서만 근무하다 퇴직한 후에, 고향으로 내려온 L형도 천안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었다면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태조산 기슭에 자리한 각원사와 좌불(座佛)을 보자며 안내하여 주었다. 절은 시내 주택지와 가깝게 있고, 오늘이 법회(法會)라도 있는 날인지, 절 마당은 승용차들로 가득 메웠으며, 법당 안에는 신도들이 꽉 차 있었다. 절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좌불 상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소문난 순두부 찌개백반으로 점심대접을 받았고, P형이 손수 만들었다는 포도주와 포도즙수도 선물로 받았다.

L형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지나면서 L형과 합류하고, 집합장소에서는 이미 와 있는 친구들과 1년 만에 만나는 인사로 시끌벅적 하였다. 참가하겠다고 약속된 친구들은 다 왔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운보 김기창 화백이 생전에 작품 활동을 하던 운보 미술관의 이모저모와 미술품, 넓은 뜰 곳곳에 전시된 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수석, 수족관에서 기르는 관상어, 적당한 간격으로 있는 관상수 등을 보면서 감상(感賞)하였다. 돌아오는 길에는 손병희 선생의 출생지인 유희지를 찾았다. 너른 터에 초가집만 덩그러니, 손병희 선생의 동상, 그리고 태극기가 게양되어있고, 울타리 밖에도 태극기가 32장 일정한 간격으로 게양되어있어 3.1운동당시 33인을 상징하듯 펼쳐지고 있었지만, 훌륭한 선생님의 유희지가 너무나 홀대되는 것 같아 늦가을의 석양빛이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이런 현장을 통하여 우리 역사를 잘 가르치고 민족정기를 세워 나가야 할 터인데... 아쉬워하며 돌아오는 길은 허전하였다.

저녁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 친구들이 가져온 매실주와 백세주로 흥을 돋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내년에 '입학 50주년 기념'으로 실시하는 제주 관광계획을 제주도에 사는 K형의 대략적(大略的)인 설명과, 오늘 참석 못한 회원들의 근황(近況)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3개의 큰방에 분산시켜 자도록 하였으나, 방마다 도란도란 목소리로 깊어가는 가을밤이 정다웠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못 다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다가 목욕탕 문을 여는 다섯시가 지나, 친구들의 안내로 회원모두 초정약수 원탕에서 몸을 씻었고, 나는 광천수가 나오는 약수탕을 서너 차례나 들랑거리며 1시간이 넘도록 목욕을 즐겼다.

충북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이곳 별미인 올갱이국(다슬기 탕)으로 대접하여 주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관광 예정표에 따라 이동하면서 전설에 얽혀있는 이터재의 9녀성도 올라갔다 내려와, 청주시에 있는 상당산성을 답사하였다. 이 산성은 포곡식 산성으로,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자주 갔던 공주산성보다, 잘 쌓여 있었고 보존도 잘 되어 있었으며 규모도 컸다. 삼국시대에는 영토확장을 위한 치열한 전투가 자주 일어난 곳이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왜구의 침략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안내자의 설명을 들었다. 나는 이 성을 지켰던 옛날 군인의 모습을 그려보며, 친구들과 함께 성을 완전히 한바퀴 돌고나니 더욱 좋았다. 찾아오기 어려운 곳들을 관광하고 그 풍광(風光)을 마음속에 담고 나서, 이곳 별미인 묵밥으로 점심을 끝내며, 내년 봄에는 제주도에서 부부동반으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불가(佛家)에서는 지나다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였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사회에서, 같은 학과에 입학하여 4년간 함께 공부한 인연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친구들이, 일년에 두 번씩 정기적(定期的)으로 만나, 새록새록 돌아나는 추억(追憶) 속에, 이어지는 우정은 자랑스럽고 아름다웠다. 또 부부동반으로 친구들을 만나 제주의 해변을 걸으면서, 우정을 돈독(敦篤)히 할 수 있는 그리움을 안고 내년 봄을 기다려 보는 것도, 일흔이 넘은 노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여 보니, 잔잔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 번진다.

2005. 11. 3

9월 1일자 승진 및 영전 동문 명단

【인천지부】

정상갑(20, 수학)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관 → 선인고 교장
 김한신(22, 수학) 부개여고 교장 → 인천남부교육청 학무국장
 이학진(25, 독어) 검단고 교장 → 동인천여중 교장
 류기관(26, 물리) 강화중 교장 → 인천공항중 교장
 박정현(26, 역사) 인송중 교장 → 강서중 교장
 이서균(29, 수학) 가좌중 교사 → 가정여중 교장
 박동배(30, 체육) 관교여중 교사 → 관교중 교장
 이상복(32, 국어) 인천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육태화(34, 국어)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 직전여자고등학교 교장
 박운국(34, 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 제물포고등학교 교장
 윤건선(35, 교육) 동인천고 교사 → 인천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경기지부】

장중해(19, 국어) 광명교육청 학무과장 → 용곡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지정용(22, 국어) 연천교육청 학무과장 → 용인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안일홍(23, 국어) 백미중 교장 → 동두천중앙고 교장
 이정순(23, 복어) 의왕중 교장 → 대원여중 교장
 김광국(23, 국어) 공도중 교장 → 안성여자중학교 교장
 우금람(23, 화학) 덕산중 교장 → 풍동중 교장
 서정렬(24, 지구) 소하중 교장 → 영문고 교장
 최호재(24, 화학) 병점고 교장 → 영동중 교장
 천영호(25, 생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공내중 교장
 김국희(25, 국어) 대지중 교장 →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장학관
 백두현(25, 지구) 숙지고 교장 → 병정고 교장
 오원수(25, 수학) 용인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허문석(25, 물리) 와동중 교장 → 성인중 교장
 오세웅(25, 역사) 영통중 교장 → 서운중 교장
 정재섭(26, 지구) 인천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 → 청왕고 교장
 김용태(27, 국어) 천천고 교장 →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장학사
 최인섭(28, 지구) 문산고 교장 → 고양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현철(28, 가정) 초지고 교사 → 백운중 교장
 이기석(28, 불어) 석천중 교사 → 서해중 교장
 이학희(29, 독어) 고양중 교장 → 갈월중 교장
 이상기(29, 국어) 구성고 교장 → 백서중 교장
 조운숙(29, 체육) 경기도제2교육청 장학사 → 심원여중 교장
 오동진(29, 역사) 화수고 교사 → 백마중 교장
 송진섭(29, 국어) 수성고 교장 → 초지고 교장
 정민환(29, 수학) 중원고 교사 → 원곡고 교장
 오정숙(29, 가정) 죽전고 교사 → 이매중 교장
 송재근(30, 영어) 동두천교육청 장학사 → 안양부흥중 교장
 강승식(30, 독어) 남양주교육청 장학사 → 영통중 교장
 성수음(31, 국어) 시흥교육청 장학사 → 매원중 교장
 박경주(31, 불어) 의정부고 교사 → 백학중 교장
 류기진(31, 체육) 수원교육청 장학사 → 태창중 교장
 장영해(31, 생물) 고양교육청 장학사 → 수원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광범(33, 물리) 용인교육청 장학사 → 경기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
 이상기(34, 체육)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수성고 교장
 이도호(35, 화학) 성남교육청 장학사 → 경기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 장학사
 이규성(35, 무리) 송탄고 교사 → 용인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성낙은(36, 체육) 안양교육청 장학사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
 송창민(36, 생물) 연천교육청 장학사 → 경기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 장학사
 성정현(36, 체육) 호국교육원 → 안양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서건석(37, 체육) 일등고 교사 → 경기도제2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
 설영민(40, 체육) 숙지고 교사 → 경기호국교육원 연구사

【전북지부】

최영희(21, 가정) 할리중 교장 → 이리여고 교장
 박재형(23, 교육) 여산고 교장 → 이리여고 교장
 이재춘(23, 수학) 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 전북해양수련원 원장
 김용현(25, 수학) 정우중 교사 → 대성중 교사
 김삼순(25, 국어) 전주우아중 교사 → 성관중 교장
 정인섭(26, 독어)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 → 전주고 교장
 강동원(26, 생물) 남원고 교사 → 전주술내고 교장
 윤영중(27, 수학) 서천주중 교사 → 남원용성중 교장
 이상훈(27, 수학) 무주교육청 학무과장 → 장수중 교장

【충북지부】

김금순(18, 화학) 칠성중 교장 → 청주 가경중 교장
 영노봉(20, 교육) 내포중 교장 → 청원 부강중 교장
 권대홍(22, 지구) 한국고원대 교육연구사 → 괴산 감물중 교장
 김옥현(22, 지구) 부강중 교장 → 청주 상당고 교장
 오병복(23, 수학) 서경중 교장 → 충주 칠금중 교장
 박영진(23, 일사) 흥덕고 교장 → 괴산 칠성중 교장
 최재우(23, 역사) 청주여고 교사 → 괴산중 교장
 정기흥(26, 독어) 제천중 교사 → 충주 여성여중 교장

【광주·전남지부】

이창우(18, 수학) 순천제일고 교장 → 순천여고 교장
 이효동(19, 화학) 영산중 교장 → 일곡중 교장
 송병국(19, 영어) 구림중 교장 → 봉황고 교장
 이재운(20, 수학) 강진교육청 교육과장 → 함평교육청 교육장
 강용기(20, 수학) 전남제일고 교장 → 순천제일고 교장
 한철하(21, 수학) 목포여고 교사 → 유일중 교장
 송도환(22, 화학) 광주무등중 교장 → 문흥중 교장
 안경현(23, 물리) 유일중 교사 → 압해중 교장
 선득래(24, 독어) 동산여중 교장 → 완도산지중 교장
 이문기(25, 지구) 무안복중 교장 → 장산중 교장
 정석기(25, 지리) 문흥중 교장 → 운남중 교장

김응표(26, 수학) 무안고 교감 → 목포청호중 교감
 청하신(27, 영어) 지원중 교감 → 영곡문화원 원장
 조종현(28, 지구) 나주중 교감 → 나주여고 교감

【대전지부】

조영연(18, 국어) 대전법동중 교감 → 대전서중 교감
 강진수(21, 수학)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대전만년고 교감
 한을수(22, 영어) 대전둔산여고 교사 → 동신고 교감
 이남우(22, 체육) 대전김천중 교감 → 대전체육고 교장
 김원명(23, 영어) 대전고 교감 → 대전전자기계산업고 교장
 이경후(23, 지구) 대전매봉중 교감 → 대전과학고 교감
 황만지(23, 물리) 동신고 교감 → 대전만년고 교감
 성진경(23, 물리) 대전서중 교감 → 진장중 교장
 서영봉(24, 일사) 대전서부교육청 장학사 → 대전외삼중 교감
 정해중(24, 물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 대전내동중 교감
 방명홍(25, 체육) 대전동부교육청 장학사 → 대전광역시교육청 평생체육교육과 장학사
 김중명(25, 독어) 대덕고 교사 → 대전봉산중 교감
 송재전(25, 체육) 대전고 교사 → 대전대화중 교감
 홍비표(26, 영어) 대전정림중 교사 → 대전대운중 교감
 민병인(27, 수학) 대전둔산중 교사 → 대전교육정보원 교육연구사
 김종관(27, 독어) 대전고 교사 → 대전여고 교감
 한기은(28, 체육) 대전체육고 교감 → 회덕중 교장
 이재현(30, 체육) 대전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 → 대전김천중 교감
 오두환(30, 일사) 대전외삼중 교감 → 동신중 교장
 정흥재(34, 생물) 유성고 교사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충 남】

김규현(17, 국어) 공주교육청 교육장 → 담진정보고 교장
 김태호(19, 영어) 대천여상 교감 → 온양용화고 교감
 최정식(19, 수학) 천안쌍용중 교감 → 송산중 교장
 정재현(19, 영어) 홍성교육청 학무과장 → 홍성고 교장
 박성건(19, 화학) 천안동여중 교장 → 천안봉서중 교장
 나창순(20, 지리) 장항공고 교장 → 장항공고 교장
 김광섭(20, 국어)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종권(21, 수학)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김태정(22, 지구) 충청남도교육청 과학실업정보과 장학사 → 부여여중 교장
 박용재(22, 수학) 금산고 교감 → 홍성여고 교장
 박종규(22, 물리) 만리포고 교감 → 서산성봉학교 교감
 차경호(22, 수학)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장학사 → 공주생명과학고 교감
 이철훈(22, 물리) 충남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관 → 충남과학직업교육원 교육연구관
 김중성(22, 영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홍보과장 → 공주교육청 교육장
 박상덕(22, 영어) 담진정보고 교장 → 용남중 교장
 류인수(23, 불어) 정안중 교감 → 서산부춘중 교장
 이두영(23, 물리) 부석중 교감 → 둔포고 교감
 조병택(23, 수학) 송산중 교장 → 천안신병중 교장
 최창석(23, 지리) 장암중 교장 → 부여중 교장
 민병교(23, 수학) 용남중 교장 → 보령교육청 학무과장

김형근(24, 생물) 유구중 교사 → 만리포고 교감
 신성순(24, 지리) 홍신농공고 교감 → 안면고 교장
 조영화(24, 국어) 서산여고 교감 → 해미중 교장
 안성준(24, 수학) 음봉중 교장 →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신춘식(24, 수학) 안면중 교장 → 양화중 교장
 장길수(24, 지리) 사곡중 교장 → 봉황중 교장
 김주남(25, 물리) 부여중 교사 → 금마중 교감
 박석천(25, 지구) 천안성정중 교사 → 서산부석중 교감
 김진택(25, 일사) 보령교육청 학무과장 → 은산초.중 교장
 이필구(25, 국어) 양화중 교장 → 금산동중 교장
 고광산(26, 체육) 온양용화고 교감 → 예산여중 교장
 황의호(26, 지리) 미산중 교감 → 남포중 교장
 김기수(26, 체육) 천안봉서중 교감 → 천안여고 교감
 박상숙(26, 역사) 안면고 교감 → 서산여고 교감
 최종걸(27, 화학) 온양고 교사 → 예산여고 교감
 천성하(27, 수학) 둔포고 교감 → 도고중 교감
 이남주(27, 체육) 광천여중 교감 → 정안중 교감
 심의경(27, 일사) 성환고 교장 → 성환고 교장
 성태경(27, 지리)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연무중 교감
 최일성(28, 일사) 함덕여고 교감 → 송남중 교감
 손석만(28, 미술) 충남애니메이션고 교사 → 장항중 교감
 이상현(28, 일사) 부여여중 교사 → 세도중 교감
 조옥형(28, 영어) 부여고 교사 → 안면고 교감
 송영섭(29, 수학) 재원중 교감 → 금산여고 교감
 전경섭(30, 수학) 성환고 교감 → 천안동여중 교감
 심재창(30, 수학) 부여교육청 장학사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장학사
 김재숙(32, 국어) 부리중 교사 → 금산교육청 장학사
 이희중(32, 국어) 천안쌍용고 교사 → 서천교육청 장학사
 이영직(33, 물리) 충남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 충남과학직업교육원 교육연구사
 정영규(33, 화학) 충남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 충남과학직업교육원 교육연구사
 조익수(33, 생물) 충남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 충남과학직업교육원 교육연구사
 이석희(34, 국어) 충남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조국형(34, 수학) 청양교육청 장학사 → 충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윤석은(34, 지리) 논산교육청 장학사 →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준태(35, 생물) 당진교육청 장학사 → 충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서형근(35, 화학) 금산교육청 장학사 → 충청남도교육청 과학실업정보과 장학사
 신경희(35, 교육) 서천교육청 장학사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윤종욱(35, 불어) 충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 부여교육청 장학사
 강승권(36, 수학) 충남체육고 교사 → 청양교육청 장학사
 전운주(37, 영어) 온양용화고 교사 → 담진교육청 장학사
 황성서(39, 미술) 천안복중 교사 → 보령교육청 장학사

【부산지부】

강영민(17, 국어) 부산중앙고 교장 → 개림중 교장
 허태은(20, 체육) 부산진여성 교감 → 주례여중 교장

동창회관건립기금 기탁자 명단

(2006년 3월 28일부터 2006년 9월 1일까지 납부 현황)

- ※ 근무처는 기탁 당시의 재직기관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분납의 경우 총액을 게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오제직 (13, 화학) 10,000,000원

중국 상해한국학교

양승욱 (35, 중어), 임진환 (36, 음악) 200,000원

공주대학교

임규진 (19, 교육), 최석남 (24, 화학) 1,000,000원

충북예술고등학교

최철환 (22, 수학) 300,000원

광주지부 퇴임동문

강진성 (11, 화학) 100,000원

원·고·모·집

본 동창회보 편집실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간으로 12,000부가 발간되는 우리 동창회보는 가장 널리

동문간의 소식을 전하는 가교가 될 것입니다.

- 원 고 종 류 : 각 지부 소식, 회원 동정(애경사, 승진, 저서발간, 수상 등), 문예 (시, 수필 등) 등 무슨 글이라도 좋음.
- 원 고 분 량 : 200자 원고지 5~6매 정도(내용에 따라 넘어도 괜찮음)
- 원고보낼곳 : 우리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 또는 팩스로 보내셔도 됨.
- 시 기 : 연 중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2006. 3. 25 ~ 2006. 9. 10 입금분)

【서울지부】

조익현(1, 수학)	김지수(2, 국어)	최명진(2, 수학)	조신행(4, 수학)	백승태(5, 물리)	강창식(5, 수학)
하예웅(6, 국어)	이기승(7, 생물)	구윤섭(7, 화학)	류인청(9, 화학)	이준용(9, 화학)	성기일(10, 국어)
안치수(10, 물리)	유호준(10, 생물)	이상범(10, 수학)	이무상(10, 수학)	여철현(10, 화학)	김연주(11, 화학)
조성분(12, 물리)	정영기(12, 수학)	윤형호(12, 수학)	이기남(13, 물리)	이기태(13, 물리)	이수일(13, 화학)
김현선(13, 화학)	홍석화(14, 국어)	이일동(14, 국어)	윤세도(14, 수학)	윤상준(14, 수학)	진옥자(15, 가정)
윤희중(15, 체육)	류상현(16, 생물)	송영현(17, 영어)	신구영(18, 교육)	윤수영(18, 생물)	인영태(18, 영어)
박대윤(18, 영어)	장석민(19, 교육)	전수태(19, 국어)	임재석(19, 물리)	배기억(19, 수학)	안길래(19, 수학)
박헌화(19, 화학)	류오현(19, 화학)	나일준(19, 화학)	최용희(20, 화학)	김춘자(21, 국어)	민영구(21, 영어)
임창재(22, 교육)	박찬섭(22, 물리)	민대홍(22, 생물)	손성태(22, 수학)	이후재(22, 수학)	이만원(22, 수학)
김숙형(22, 역사)	박종우(22, 영어)	강화철(22, 영어)	이창우(22, 영어)	오대석(22, 일사)	정은영(22, 화학)
김지원(23, 영어)	권태익(23, 화학)	한익섭(24, 교육)	윤홍중(24, 생물)	서성진(24, 생물)	김희옥(24, 생물)
한경연(24, 수학)	김양욱(25, 국어)	김주평(25, 역사)	박인규(26, 교육)	심상선(26, 독어)	곽순도(26, 역사)
조규익(27, 국어)	오석규(28, 수학)	명성호(28, 영어)	임영호(29, 수학)	권중훈(31, 독어)	이형범(33, 국어)
이관배(33, 역사)	송태영(34, 물리)	한홍열(34, 지구)	김응길(34, 물리)	박교선(34, 한문)	송병시(35, 물리)
박치동(35, 상업)	이상수(35, 영어)	김종승(35, 화학)	정환희(38, 국어)		

【인천지부】

이정용(7, 교육)	김원규(7, 화학)	최운영(10, 수학)	임병열(10, 화학)	이민웅(14, 영어)	이향자(16, 가정)
김봉희(16, 물리)	김인철(16, 화학)	이유순(18, 가정)	이일섭(18, 국어)	조병복(19, 수학)	조재천(19, 지리)
윤재로(20, 수학)	최병두(21, 국어)	김중성(21, 수학)	김용문(21, 화학)	백건우(21, 화학)	문길모(22, 수학)
김한신(22, 수학)	김영선(22, 체육)	박임옥(23, 가정)	장성재(23, 지구)	이덕호(24, 교육)	강용재(24, 물리)
이학진(25, 독어)	김명철(25, 물리)	진 숙(25, 영어)	유영옥(25, 체육)	류기관(26, 물리)	김혜경(26, 생물)
김기배(29, 교육)	김현목(29, 역사)	김오복(30, 물리)	이원우(30, 생물)	문형봉(30, 수학)	박영조(30, 지리)
김수남(31, 국어)	최숙자(31, 수학)	박운국(32, 교육)	정운희(32, 영어)	구영선(32, 영어)	최종선(33, 일사)
한승도(33, 수학)	류장걸(34, 미술)	장후순(34, 지리)			

【경기지부】

이종완(5, 수학)	김중수(7, 생물)	이준평(9, 물리)	박덕래(9, 화학)	최광렬(10, 국어)	김철수(10, 물리)
김종희(13, 화학)	이학재(13, 국어)	인광기(13, 국어)	이원우(13, 물리)	한상표(13, 생물)	박종철(13, 수학)
송호봉(13, 화학)	문수진(16, 역사)	김시욱(17, 물리)	임창만(17, 영어)	권용희(18, 교육)	박동순(18, 수학)
김기식(18, 지리)	한배섭(18, 지리)	강희성(19, 교육)	장중하(19, 국어)	정정원(20, 국어)	김중환(20, 수학)
김동운(20, 영어)	양재룡(20, 지리)	박상철(20, 체육)	조중벽(20, 화학)	최준배(22, 수학)	김승주(22, 체육)
김광국(23, 국어)	안일홍(23, 국어)	홍태식(23, 지리)	우금림(23, 화학)	권혁렬(24, 지리)	지성환(25, 국어)
김국희(25, 국어)	김동철(25, 물리)	전호신(25, 불어)	원유연(25, 수학)	오원수(25, 수학)	양재길(25, 일사)
배정환(25, 일사)	이덕남(25, 일사)	류정렬(25, 지구)	계필현(25, 지리)	양현숙(26, 가정)	김창희(26, 가정)
한명숙(26, 가정)	조병천(26, 국어)	이하원(26, 물리)	임현영(26, 생물)	백행선(26, 생물)	윤병석(26, 지리)
김성환(26, 체육)	신진현(27, 교육)	나길수(27, 미술)	이찬호(27, 생물)	전성재(27, 수학)	권혁수(27, 수학)
전동엽(27, 영어)	김윤렬(27, 일사)	이석길(27, 지리)	박상백(27, 화학)	박기양(27, 화학)	정영백(27, 화학)
이관성(28, 독어)	류해철(28, 독어)	김병근(28, 수학)	류현식(28, 물리)	홍순호(28, 물리)	김재탁(28, 물리)
홍완성(28, 생물)	심재린(28, 역사)	서경숙(29, 가정)	이상기(29, 국어)	조기형(29, 물리)	송남섭(29, 물리)
소진복(29, 생물)	이웅구(29, 역사)	김효경(29, 지구)	안낙규(29, 지구)	신희철(29, 지리)	민병성(29, 체육)
황진영(29, 화학)	김수현(30, 국어)	김현숙(30, 물리)	장병국(30, 수학)	정해준(30, 역사)	송제근(30, 영어)

I 이사회비 납부자명단 I

이기덕(30, 영어)	김기수(30, 화학)	성낙호(31, 교육)	조도연(31, 수학)	배연욱(32, 가정)	리상집(32, 역사)
서정철(33, 물리)	안영권(33, 역사)	이민식(33, 일사)	최종선(33, 일사)	이은광(33, 한문)	조도순(34, 상업)
김석제(34, 한문)	송광래(35, 생물)	송청민(36, 생물)	정필영(36, 수학)	조준기(36, 영어)	정미애(38, 체육)

【강원지부】

김을진(7, 물리)	신봉철(10, 물리)	권 철(10, 화학)	이창훈(12, 물리)	장광욱(12, 화학)	오재용(13, 물리)
진하섬(15, 물리)	임홍수(15, 생물)	이기태(16, 생물)	박진서(18, 국어)	이명수(19, 교육)	김영래(20, 교육)
윤태호(22, 국어)	차문희(22, 물리)	김천수(22, 생물)	김일준(22, 화학)	박홍진(23, 물리)	이승균(23, 수학)
오승환(25, 화학)	박윤균(26, 교육)	이중희(26, 생물)	김일중(26, 지리)	김익환(29, 화학)	김병도(30, 수학)
정상은(30, 지구)					

【충북지부】

진기두(3, 국어)	이갑식(6, 수학)	이상덕(7, 생물)	김선화(7, 수학)	윤희덕(8, 국어)	이남기(8, 화학)
김영기(9, 국어)	윤석호(9, 물리)	이종진(9, 생물)	이상대(10, 국어)	오응식(10, 물리)	조준형(10, 화학)
송대한(10, 생물)	김창현(10, 생물)	김은중(11, 국어)	유병호(11, 국어)	이덕규(11, 물리)	구장서(11, 수학)
조봉래(12, 국어)	김완시(12, 물리)	박동화(12, 생물)	김옥경(13, 수학)	박성규(14, 물리)	이용만(14, 화학)
연구탁(15, 물리)	윤대영(16, 화학)	박수용(17, 국어)	이근제(17, 생물)	김준곤(17, 영어)	류봉식(17, 화학)
손충환(18, 생물)	박승균(18, 영어)	김태봉(18, 체육)	김금순(18, 화학)	김길희(19, 영어)	권낙원(20, 교육)
김종근(20, 국어)	구중천(20, 체육)	오세기(21, 체육)	박의성(22, 교육)	최철환(22, 수학)	홍기섭(22, 화학)
반용성(23, 교육)	임홍빈(23, 국어)	오병복(23, 수학)	박영진(23, 일사)	정 희(23, 지구)	김화태(23, 지구)
원정식(23, 화학)	신선인(24, 수학)	장광수(24, 지구)	현상주(25, 지구)	임운철(26, 생물)	안병헌(26, 수학)
김진완(26, 화학)	신현대(27, 일사)	김창호(27, 지구)	김진철(27, 화학)	권순섭(29, 국어)	한수열(29, 생물)
조성남(32, 국어)	박창호(35, 불어)				

【대전지부】

류재열(3, 수학)	안창로(4, 국어)	안화영(4, 국어)	이보윤(4, 물상)	김홍술(5, 국어)	윤정중(5, 물상)
윤여칭(5, 수학)	양봉자(6, 국어)	최완순(6, 물상)	조재천(7, 교육)	김순량(7, 물리)	조태연(7, 생물)
류수관(7, 생물)	배정덕(7, 생물)	송원섭(7, 화학)	신대현(7, 화학)	배윤석(7, 화학)	황선규(8, 생물)
권혁세(8, 화학)	홍영욱(9, 국어)	류영운(9, 물리)	윤석호(9, 수학)	성일호(10, 화학)	안태영(11, 국어)
오영두(11, 국어)	김병민(11, 물리)	한우현(11, 생물)	신근철(14, 국어)	한준동(14, 물리)	이진규(14, 생물)
이상윤(14, 영어)	김영광(15, 생물)	김선화(15, 지리)	이영홍(15, 체육)	이명수(15, 체육)	이병해(17, 영어)
조영연(18, 국어)	서요원(18, 수학)	전봉룡(18, 영어)	최대우(18, 체육)	한병희(18, 화학)	이상귀(19, 교육)
신상덕(19, 수학)	홍삼순(19, 수학)	최화중(19, 일사)	손인현(19, 체육)	양낙진(20, 교육)	이문현(20, 영어)
박희문(20, 영어)	김기웅(20, 영어)	박찬각(20, 일사)	강진수(21, 수학)	김덕주(21, 수학)	정호진(21, 지구)
박춘욱(22, 가정)	이재석(22, 국어)	박춘전(22, 생물)	이선영(23, 국어)	오명성(23, 수학)	송재홍(23, 역사)
김원명(23, 영어)	임봉수(23, 일사)	정학순(23, 일사)	이진규(23, 지구)	김한수(23, 체육)	이선원(24, 교육)
김정길(24, 국어)	정해중(24, 물리)	이재진(24, 물리)	이규성(24, 수학)	유익규(24, 영어)	박원규(24, 지리)
황규철(24, 화학)	박찬승(24, 화학)	김용래(25, 교육)	김종훈(25, 물리)	함영원(25, 수학)	최문식(25, 체육)
강병오(25, 체육)	박준화(26, 교육)	박경철(26, 물리)	김진용(27, 교육)	나태순(27, 일사)	주창진(27, 체육)
한상훈(28, 교육)	김정목(28, 미술)	이상호(28, 수학)	이찬배(28, 수학)	장길환(28, 영어)	정기범(28, 지구)
김갑동(29, 역사)	이해용(30, 국어)	이형로(30, 지구)	이차숙(32, 미술)		

【충 남】

이보현(1, 국어)	정기택(2, 국어)	배기호(4, 국어)	이준세(4, 물상)	김일배(4, 물상)	이규복(5, 국어)
민병덕(6, 물상)	정영호(6, 수학)	소진근(6, 수학)	맹일찬(7, 교육)	김순일(7, 교육)	황규태(7, 교육)
윤동규(7, 국어)	윤종현(7, 물리)	강기민(7, 물리)	박기석(7, 수학)	백승택(8, 국어)	박순규(8, 물리)
이용업(9, 국어)	이건화(9, 생물)	이재원(9, 화학)	남철희(10, 국어)	김용복(10, 물리)	심재희(10, 물리)

김성순 (10, 물리)	윤병혁 (10, 수학)	박성규 (11, 국어)	이춘우 (11, 물리)	임동창 (11, 생물)	김남섭 (11, 화학)
손병윤 (11, 화학)	이규옥 (12, 국어)	강현규 (12, 국어)	이종옥 (12, 물리)	신상목 (12, 생물)	김학근 (12, 수학)
길병문 (12, 수학)	임현경 (13, 국어)	최명식 (13, 물리)	강성구 (13, 수학)	오후진 (13, 수학)	김용경 (13, 영어)
이남수 (13, 화학)	오제직 (13, 화학)	이극래 (14, 국어)	홍욱기 (14, 국어)	김천중 (14, 물리)	이상구 (14, 생물)
이영하 (14, 생물)	이정웅 (14, 수학)	오양식 (14, 영어)	용성해 (14, 영어)	이재서 (14, 영어)	강숙자 (14, 화학)
강기식 (14, 화학)	이선자 (15, 가정)	전경란 (15, 가정)	김현일 (15, 지리)	미원국 (16, 물리)	조남영 (16, 생물)
한경희 (16, 일사)	이문종 (16, 지리)	원종희 (16, 체육)	김길한 (17, 영어)	김동주 (17, 체육)	이성주 (17, 체육)
이희두 (17, 체육)	김중태 (17, 화학)	이정희 (18, 가정)	박용길 (18, 가정)	김동환 (18, 교육)	신통철 (18, 교육)
이재승 (18, 교육)	이명기 (18, 교육)	강흥구 (18, 국어)	김진규 (18, 국어)	곽무용 (18, 일사)	김학렬 (18, 지리)
박승란 (19, 가정)	김정희 (19, 가정)	임규진 (19, 교육)	김정식 (19, 국어)	김금일 (19, 수학)	우수환 (19, 수학)
최정식 (19, 수학)	김태호 (19, 영어)	백성기 (19, 일사)	전환수 (19, 체육)	서성보 (19, 체육)	조동호 (19, 체육)
이철현 (19, 체육)	박성건 (19, 화학)	표종희 (20, 가정)	김광섭 (20, 국어)	오강수 (20, 물리)	오창근 (20, 생물)
임영빈 (20, 생물)	강지형 (20, 수학)	김평산 (20, 수학)	안병옥 (20, 영어)	김준권 (21, 교육)	황치은 (21, 물리)
임재무 (21, 물리)	육근철 (21, 물리)	김정웅 (21, 생물)	김종권 (21, 수학)	윤우영 (21, 수학)	지희순 (21, 영어)
이명언 (21, 영어)	강용구 (21, 영어)	김용현 (21, 지구)	유병학 (21, 지구)	구달완 (21, 지구)	소선섭 (21, 지구)
최석원 (21, 지구)	강오수 (21, 체육)	이명근 (21, 체육)	정금영 (21, 체육)	차용문 (22, 국어)	류인갑 (22, 국어)
조동길 (22, 국어)	이명호 (22, 물리)	이철훈 (22, 물리)	박종규 (22, 물리)	김문원 (22, 물리)	배광석 (22, 생물)
윤의수 (22, 생물)	성준택 (22, 수학)	박용재 (22, 수학)	차경호 (22, 수학)	조재영 (22, 수학)	오대현 (22, 역사)
김순경 (22, 영어)	김종성 (22, 영어)	박상덕 (22, 영어)	최중옥 (22, 영어)	노수명 (22, 일사)	김인식 (22, 지구)
이용언 (22, 지구)	김태정 (22, 지구)	서원진 (22, 지리)	심성래 (23, 국어)	윤어원 (23, 국어)	이태주 (23, 국어)
김성수 (23, 국어)	유병환 (23, 국어)	이두영 (23, 물리)	김동식 (23, 불어)	이철주 (23, 생물)	이형로 (23, 수학)
민병교 (23, 수학)	조병택 (23, 수학)	노영순 (23, 수학)	이덕호 (23, 수학)	공병현 (23, 역사)	정경원 (23, 역사)
윤용혁 (23, 역사)	이해준 (23, 역사)	이동진 (23, 영어)	조일형 (23, 지리)	최창석 (23, 지리)	유장준 (23, 화학)
임재희 (24, 가정)	홍재호 (24, 교육)	최창길 (24, 국어)	구중희 (24, 국어)	조영화 (24, 국어)	김성래 (24, 독어)
박종호 (24, 물리)	류호상 (24, 불어)	이창우 (24, 수학)	이용배 (24, 수학)	안성준 (24, 수학)	임창국 (24, 수학)
오선규 (24, 영어)	윤형진 (24, 영어)	백복균 (24, 영어)	이광희 (24, 영어)	정춘희 (24, 영어)	윤기수 (24, 일사)
오승찬 (24, 지구)	김종현 (24, 지구)	이희원 (24, 지리)	장길수 (24, 지리)	신성순 (24, 지리)	배세환 (24, 체육)
황운선 (24, 체육)	박승규 (24, 체육)	김락중 (24, 체육)	김희태 (24, 체육)	편의범 (24, 체육)	김학수 (24, 체육)
최석남 (24, 화학)	신희자 (25, 교육)	최동식 (25, 교육)	김광희 (25, 교육)	김동성 (25, 교육)	이일주 (25, 교육)
이필구 (25, 국어)	박홍서 (25, 국어)	이민복 (25, 국어)	김영유 (25, 물리)	황규만 (25, 물리)	조삼래 (25, 생물)
박선규 (25, 수학)	이동영 (25, 역사)	서종완 (25, 역사)	박희관 (25, 영어)	박용래 (25, 영어)	신현주 (25, 영어)
임병빈 (25, 영어)	임달순 (25, 일사)	안상기 (25, 일사)	이용만 (25, 체육)	김정수 (25, 체육)	김종인 (25, 체육)
양인모 (25, 화학)	심숙경 (26, 가정)	김성기 (26, 교육)	오춘근 (26, 국어)	김양선 (26, 독어)	류진상 (26, 독어)
류지욱 (26, 물리)	홍순순 (26, 역사)	구자일 (26, 영어)	신원철 (26, 영어)	백옥현 (26, 영어)	이동우 (26, 지구)
권순덕 (26, 지리)	최원희 (26, 지리)	정명광 (26, 지리)	황의호 (26, 지리)	최성길 (26, 지리)	고광산 (26, 체육)
이재갑 (26, 체육)	최기영 (26, 화학)	홍춘표 (26, 화학)	정경훈 (27, 국어)	이대구 (27, 국어)	유순식 (27, 미술)
최기성 (27, 미술)	박상익 (27, 생물)	이경수 (27, 수학)	배순근 (27, 수학)	김용환 (27, 수학)	조병훈 (27, 영어)
이명우 (27, 영어)	신흥렬 (27, 지구)	성태경 (27, 지리)	김상학 (27, 지리)	이영교 (27, 체육)	이명성 (27, 체육)
이남주 (27, 체육)	황호영 (27, 체육)	이달우 (28, 교육)	한승록 (28, 교육)	지병규 (28, 국어)	김보희 (28, 독어)
이희복 (28, 물리)	이옥주 (28, 미술)	이영이 (28, 불어)	정기홍 (28, 수학)	성열욱 (28, 수학)	양종국 (28, 역사)
원동규 (28, 영어)	김용환 (28, 영어)	서만철 (28, 지구)	조기호 (28, 지리)	구일희 (28, 체육)	박성업 (28, 화학)
김인수 (28, 화학)	오광식 (28, 화학)	류해밀 (28, 화학)	이상호 (29, 교육)	임연기 (29, 교육)	윤운성 (29, 교육)
이석우 (29, 국어)	오능근 (29, 국어)	오창호 (29, 생물)	황선태 (29, 수학)	장주현 (29, 역사)	김동명 (29, 영어)
안덕규 (29, 영어)	박영준 (29, 영어)	김선호 (30, 가정)	윤현석 (30, 교육)	이관우 (30, 독어)	이현덕 (30, 독어)
문일규 (30, 물리)	조이연 (30, 생물)	심재창 (30, 수학)	박진상 (30, 일사)	서광수 (30, 지구)	정환영 (30, 지리)
이진현 (30, 화학)	조미선 (31, 가정)	김삼섭 (31, 교육)	이혜소 (31, 미술)	박달원 (31, 수학)	이경복 (31, 수학)
이현복 (31, 수학)	정재근 (31, 수학)	이남석 (31, 역사)	김인표 (31, 영어)	송해성 (31, 영어)	윤주역 (31, 일사)
가권순 (31, 일사)	김희수 (31, 지구)	남정찬 (31, 화학)	이재영 (32, 교육)	가경신 (32, 국어)	이문희 (32, 독어)
김준태 (32, 물리)	김영길 (32, 미술)	최호규 (32, 상업)	김현섭 (32, 생물)	김용우 (32, 영어)	신호상 (32, 화학)
이영직 (33, 물리)	조익수 (33, 생물)	이석구 (33, 생물)	신열호 (33, 역사)	서정문 (33, 음악)	서명석 (33, 지구)

Ⅰ 이사회비 납부자명단 Ⅰ

정영규(33, 화학) 김미애(34, 가정) 안미숙(34, 무용) 진중화(34, 불어) 조국행(34, 수학) 박돈희(34, 영어)
 윤석은(34, 지리) 박상식(34, 체육) 이동재(34, 한문) 신경희(35, 교육) 최 선(35, 무용) 이하영(35, 불어)
 오종근(35, 음악) 서형근(35, 화학) 김영미(36, 국어) 이병기(36, 문헌) 안은준(37, 물리) 이희천(37, 일사)
 김맹기(37, 지구) 서정석(38, 역사) 임해환(39, 물리) 장동호(40, 지리) 박지훈(42, 지리) 박인규(42, 체육)
 이기원(45, 물리) 김 웅(48, 농공)

【광주·전남지부】

최홍진(1, 수학) 이종순(6, 국어) 최병순(7, 교육) 남장원(7, 생물) 정경모(10, 생물) 이병문(11, 국어)
 강진성(11, 화학) 남성우(14, 국어) 윤낙현(14, 국어) 서기남(14, 국어) 오성태(14, 생물) 김정삼(14, 생물)
 윤남수(14, 화학) 박천진(16, 교육) 최정백(16, 역사) 지대운(17, 생물) 안형남(17, 영어) 이장우(18, 수학)
 박종연(18, 영어) 박필수(18, 영어) 윤기선(18, 지리) 양형민(19, 국어) 윤정근(19, 국어) 김우현(19, 물리)
 오병균(19, 수학) 강장희(19, 역사) 임이택(19, 역사) 송병국(19, 영어) 이호동(19, 화학) 한영술(20, 국어)
 강용기(20, 수학) 박형빈(20, 수학) 이재운(20, 수학) 국연숙(20, 영어) 김경태(21, 물리) 정봉환(21, 역사)
 정영재(21, 지구) 심홍식(22, 영어) 박병수(22, 영어) 유시종(22, 지구) 심규남(23, 가정) 유낙주(23, 교육)
 이응식(23, 수학) 김채운(23, 일사) 김성도(23, 지구) 김순란(25, 국어) 옥경재(25, 지리) 이문기(25, 지구)
 강병수(25, 체육) 김호룡(26, 생물) 조관훈(27, 독어) 김철호(28, 교육) 정세권(30, 물리) 하용호(30, 불어)

【전북지부】

조소희(1, 가정) 오광근(3, 국어) 임정빈(3, 국어) 김태기(7, 교육) 김종구(7, 생물) 윤석조(9, 물리)
 이재택(10, 생물) 서용택(11, 생물) 서재업(11, 화학) 박종선(11, 화학) 안성호(13, 국어) 김용철(13, 국어)
 류용선(13, 국어) 임우준(13, 생물) 고병국(13, 생물) 유호식(13, 수학) 황삼인(13, 화학) 유경수(14, 국어)
 허재선(14, 물리) 서준식(14, 생물) 진교운(15, 지리) 강석태(17, 생물) 조찬귀(17, 수학) 이용숙(18, 국어)
 김용석(18, 수학) 소상호(18, 역사) 진교현(18, 영어) 김현택(18, 화학) 이맹현(19, 교육) 나창균(19, 수학)
 정규윤(19, 지리) 최동주(20, 국어) 조재득(20, 수학) 조성초(20, 체육) 최영희(21, 가정) 송국현(21, 수학)
 김홍근(22, 교육) 최경주(22, 역사) 임운수(22, 영어) 권오복(22, 체육) 곽재형(23, 교육) 김영자(24, 가정)
 소관섭(24, 국어) 송용한(24, 독어) 황덕구(24, 물리) 박희석(25, 독어) 양남호(25, 생물) 최남선(25, 일사)
 이표용(25, 지리) 박내순(25, 화학) 정인섭(26, 독어) 이학도(26, 일사) 남궁세만(27, 국어) 홍성도(27, 물리)
 이인숙(30, 가정) 배영두(31, 미술)

【경남지부】

이진규(8, 국어) 심광택(32, 지리) 김상래(34, 한문)

【부산지부】

강소기(6, 국어) 강병식(12, 국어) 오성기(15, 체육) 구자승(16, 체육) 강영린(17, 국어) 김부자(17, 체육)
 오기환(19, 국어) 김현수(21, 체육) 양점홍(21, 체육) 강창호(23, 물리) 이정지(23, 가정) 양창기(23, 체육)
 정광모(28, 수학) 우형식(32, 국어)

【경북지부】

황선봉(14, 물리) 유선하(27, 지구) 권상준(28, 수학) 유태석(29, 수학)

【울산지부】

박금태(25, 체육) 구자일(28, 체육)

【제주지부】

오상철(8, 생물) 강재보(10, 화학) 김영돈(16, 체육) 전순덕(21, 화학) 김응표(21, 화학) 진군선(24, 교육)
 홍성운(35, 불어)

가을철 건강관리

무더위도 물러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온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했던가? 말이 살피는 계절일 뿐만 아니라 사람도 살피우는 계절이다. 식욕이 좋아짐에 따라 과식하기 쉬운데 특히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나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고 비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제까지 시행해 오던 운동, 식이, 약물요법 등을 계속하여 성인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심한 밤낮의 기온 차이는 어린이나 노인에게 감기에 잘 걸리게 한다. 감염되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중세가 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근육통, 기침, 인후통, 객담, 콧물, 코막힘 등 매우 다양하며 설사 등 소화기 증세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감기의 합병증으로 기관지염이나 폐렴, 축농증, 중이염 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감기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소에 골고루 음식을 잘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신체의 방어력을 키워 놓는 것이 중요하다.

매년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할 우려가 있는데 인플루엔자는 심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1월부터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6개월 이상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 종사자 그리고 당뇨병, 협심증 등 심장질환, 신장염, 만성 신장질환, 간경화 등 만성 간질환이나 기관지 천식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등이다.

장미가 끝난 뒤라 농촌 들녘에는 쓰쓰기무시병,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 소위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알려졌던 병들에 감염될 기회가 많아진다. 대개 들쥐의 배설물이나 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므로 논일을 할 때나 등산, 낚시, 캠핑 등을 할 때는 풀밭에 들어 눕는 일을 삼가하고 긴 옷을 입어 피부가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고열, 두통 등 의심스러운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숲이나 들판에서 활동이 많은 분들은 유행성 출혈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타빅스를 접종해 두는 것도 좋다.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분은 가을철에 많이 생기는 꽃가루나 나뭇잎의 부스러기 등에 의하여 각종 알레르기성의 비염, 결막염, 피부염, 기관지염, 천식 등이 많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항히스타민제 등 보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을 맛이 끝나면 자신의 몸을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일에 쫓겨 돌보지 못한 몸을 한 번쯤 점검해 보아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한다. 질병은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48.7

<學訓>
眞理探究
價値創造
師道鍊磨

1981.3

<學訓>
誠實
創造
師道

1990.11

<學訓>
眞理探究
價値創造
師道鍊磨

동문현황 (총)

학 부			
사범대학	21,921	공과대학	2,563
인문사회과학대학	3,554	산업과학대학	3,287
자연과학대학	2,406	영상보건대학	942
계		34,673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명예박사
	1,871	65	16
교육대학원			3,189
산업과학대학원			187
계			

연혁

○ ————— ○ ————— ○ ————— ○

93.3 94.3 01.3 05.3

이공대학을
· 자연과학대학
· 공과대학으로 분리

산업대학을
→ 산업과학대학
으로 명칭 변경

공주문화대학 통합
· 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으로
개편(옥룡캠퍼스)

전안공업대학 통합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으로 개편
(천안캠퍼스)



1996. 11



〈校訓〉

眞理探究
價値創造
師道鍊磨

16명) -2006년 3월 현재-

학 원	
경영행정대학원	208
교육정보대학원	166
특수교육대학원	264
영상예술대학원	24
계	5,990

부 설 과 정	
경영행정대학원부설최고경영자과정	733
산업개발대학원부설최고지도자과정	1,288
산업과학대학부설최고농업경영자과정	1,132
계	3,153



행정도시의 중심대학!

국립공주대학교 VISION  UNIVERSITY PROJECT

- 58년 역사에 빛나는 전통의 교육요람
- 공주-예산-천안의 특화된 삼각 특성화 캠퍼스
- 5년연속 교원임용고시 합격률 전국 1위
- 저렴한 등록금, 전국 최상위 장학금 수혜율
- 높은 취업률, 맞춤형 교육과 담임교수제
- NURI사업 전국 최상위권 선정